

문우

2022 | 겨울호 | 67호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변혁의 펜을 높이 들자

편집장	김은 (국문 20)
편집위원	포솔 (영문 19) 단(丹) (독문 21) 야부 (국문 21) 노랑 (경영 21) 60 (문정 21) 이사님 (경영 21) 아자 (철학 22) 유연 (국문 22)
역은이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발행일	2023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지하 1층 문우방
디자인	이젠디엔피



더 환한 밤이 우리에게

김석영

우리는 생략될 때 서로를 읽는다

붙어 있는 페이지와 페이지를 떨어뜨리자
다시 똑같아지는 밤
다시 또 달라지는 밤

그것은 자주 지워졌다
입을 벌리면, 목젢 너머 파묻혀 있던 그것이
고개를 내밀어 공중을 떠다녔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골몰했다
왜 생각했지
왜 생각지도 못한 기억들만 기록했지

감춰진 페이지에서 발견한, 푸른 향이 나는 곰팡이

우리 중에 그것은 존재했다 두 사람일 때
하나는 외로워서 나머지를 껴안았다

자주 사용하느라 고독해진 슬픔들과 이미 넘쳐서 고요한 말줄임표들

우리 가운데 잘못 읽어 온 삶처럼 거대해지는 숨이 끼어들고

도로에 싱크홀 같은 밤이 파여 있다

더 환한 밤이 우리에게



PLAY ▶ 편집장 서문

지난 2022년은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느 때보다 기후 변화의 여파는 크게 나타났고, 정세의 변화도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웠죠. 누군가에게는 아수라장에 가까웠을 수많은 수난 속에서 우리는 휘청이며 아프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곁에 존재하는 ‘너’와 함께, 내 손에 쥔 전자기기에서 만나는 ‘너’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에서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너’를 만나고, ‘너’의 소식을 접하면서 ‘나’와 ‘너’의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숨과 침을 뱉어 내면서는 쉽게 말하지 못했을 생각의 덩어리들을, 인터넷으로는 가볍게 툭 던지기도 하죠. 하지만 쉽게 ‘너’에게 말을 건넬 수 있을 만큼, ‘나’와 ‘너’의 만남은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문우 67호 <○○의 비명>은 다양한 사람들, 생각, 소식, 그리고 일생이 연결되고 단절되는 인터넷 공론장을 주제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은 ‘디시인사이드’ 등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쓰기 귀찮거나 글쓴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유동 닉네임 중 하나입니다. ‘○○’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연결하는 전자기기만 있다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죠. 반면에 어떤 글자를 쓰든 글쓴이는 익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글쓴이가 인터넷을 벗어나면 글쓴이-○○의 말은 인터넷에서 잔해로 남아버립니다. 현실에서의 ‘말’조차 되지 못한 언어들만 유령처럼 인터넷을 떠돌게 되죠. 말로써 발화되지 못한 숨들은 단지 발악에 가까운 비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선 편집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조차 쉽게 털어내지 못했던 속내부터, 연결의 가능성과 희망을 사유하는 소망이 담겨 있죠. 검은의 「파도를 마주하며」는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페미니즘 담론 속에서 쉽게 말하지 못한 고민과 의견을 털어내면서, 편집위원들의 이야기로 안내합니다. 그다음 포슬의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혹은 우리와 너 사이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장르를 분석하면서 고통의 말하기와 듣기에서 공감과 연결 가능성을 재고합니다. 유연의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에서는 웹소설 독자로서, 여성향 로판 웹소설에서 작용하는 클리셰를 통해 독자들이 지닌 욕망과 속마음을 훑아보고 있습니다. 문우의 눈에 실린 글도 이어서 소개하자면, 아자, 야부, 루의 「전쟁에 대한 전쟁: 베트남 전쟁과 마주하기」는 기존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을 비판하면서 전쟁, 그 중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다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량의 「이어지고 싶으니까」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 단절을 강요받는 세상에서 연결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의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이 더 빠를 때가 많고, 연결과 단절이 연속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달음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속되기를, ‘너’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67호를 독자 여러분께 부칩니다.

덥고도 추운 겨울을 지나, 편집장 검은 올림 ▮

CONTENTS

권두시 / 2

편집장 서문 / 4

메인기획

온라인 담론장 / 7

검은_파도를 마주하며 / 8

포슬_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혹은, 우리와 너 사이에 / 16

유연_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 28

문우의 눈 / 38

아자_야부/루_전쟁에 대한 전쟁: 베트남 전쟁과 마주하기 / 39

노랑_이어지고 싶으니까 / 48

정리정돈 / 64

검은_자보 수난 시대 - SPG 불매 운동 자보 작성 / 65

아자_66호 독자모임 / 70

편집후기 / 83



파도를 마주하며

편집위원 겸은

※ 이 글에서는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보다는 ‘TERF 입장’,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사람/이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 인용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흔히 채식 등의 실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동물권이나 다른 타자에 대한 권리보다는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디지털 공간 밖에서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하나의 단일한 실천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 청년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은 한 진영이나 노선으로 단일하지 않으며(오혜진, 2019), 개인에 따라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이라도 채식을 하는 것이 완벽한 페미니스트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한다(이예진, 2022). 이처럼 여성들의 실천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 이러한 실천과 생각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TERF)를 하나의 입장으로 보고, ‘TERF’, ‘TERF 진영’ 등의 표현을 지양하고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다.¹

0. 아무 생각 없이 울타리 박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 리부트’라 일컬어지는 대중 및 온라인 페미니즘의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그때 친구에게 추천받아 읽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82년생 김지영』 등의 서적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였습니다. 저도 당시 ‘페미니즘 리부트’의 수혜자였던 셈이지요. 다른 사람들만큼 적극적으로 페미니스트로서의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열렬히 실천하자고 외치는 4B(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실천과는 조금 달랐지만요. 화장은 귀찮아서 원래 즐기지 않

¹ 각주 [2], 지수, “다정하게 혼란을 마주하기: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들과 만나며”,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2022.08.10., <https://fwdfeminist.com/2022/08/10/con-25/>, (접속 일자: 2023.02.11.)

있고, 연애와 섹스도 관심 없어서 안 하고, 결혼 생각도 없고. 저는 여성 인권에 관심은 많지만, 적극적인 활동 없이 얼떨결에 4B를 실천하는 정도에 그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랜팸’(‘래디컬 페미니즘’)과 ‘쓰까’(‘교차 페미니즘’)²간의 갈등과 대립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였던 2020년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법과대학 합격 및 입학 논란에 있어서, 당시 저는 뚜렷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이니 합격만 했다면 당연히 여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 오가는 설전을 보며 소위 ‘TERF’³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을 접했고, 여대에 다니는 여성들이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에 의해 현실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이들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TERF’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저는 아무런 비판 없이 트위터에 떠도는 말을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더욱이, 저는 여중과 여고를 다니면서 남성에 의한 위협을 겪지 않았기에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므로 그런 생각을 펼친 것이 아닐까, 하며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문우편집위원회(이하 문우)에서 편집위원들을 만나고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더 넓혀나갈 수 있었고, 이후 TERF 입장과 같이 내가 배운 페미니즘과는 다른 입장을 트위터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함과 혼란스러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도,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고, 이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 이전과는 달리 폭력이라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논란 사건에 얽힌 여러 의견을 다시 살펴보면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의 노골적이고 위협적인 말들—심지어 어떤 이는 당사자를 향한 혐오범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을 접한 후 TERF 입장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인상은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에게

TERF 입장은, 자신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트랜스젠더, 혹은 ‘젠더론자’라 일컬어지는, 성별 이분법에 의문을 가하는 이들)을 ‘생물학적 여성’들의 이해를 우선시해야 하는 ‘페미니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쉽게 혐오하고 ‘패버리는’ 관념으로까지 다가왔습니다. TERF 입장과 나 사이에 울타리를 박아둔 채, TERF 입장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작년 겨울, 당시 문우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퀴어 이론을 바탕으로 TERF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문우지에 실으려고 하였습니다.

1. 당신은 왜 그런가요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글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 겨울에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에 그만 ‘누워버리면서’ 문우지 글 마감은 물론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꼭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노트북의 어느 폴더 속에 글을 묻어두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마침 이번 문우 세미나 중 하나로 ‘넷페미’를 다루면서 ‘지난 겨울에 못 쓴 글을 꼭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묵혀두었던 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문득 이들은 왜 TERF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논문 ‘페미니즘 알기의 의미 10-20대 여성들의 ‘TERF’ 지지 입장을 중심으로-’(송지수, 2021), 「페미니스트들의 ‘번아웃’ 호소를 통해 드러난 강남역 이후 페미니즘 운동의 정치학」(이정연, 2022)을 접하게 되었습니다.⁴

두 논문은 각각 “10-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 알기(knowing)의 과정에서 왜 TERF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는지”와 “젊은 층의 여성들이 왜 페미니즘으로부터 ‘번아웃’⁵을 느끼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전자의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

2 통상적으로 ‘랜팸’은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이라고 여기며 페미니즘 운동에서 ‘여성’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쓰까’는 “순수한 ‘여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며 다양하고 중층적인 억압 구조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고 주장(이정연, 2022, 각주 [9])”하는 것으로 전자와 후자가 구분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구분은 실제 페미니스트들에게 이분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이정연, 2022, 각주[9]) 습니다.

3 ‘랜팸’과 ‘TERF 입장’은 다른 의미로 정의되지만, 앞에 서술한 ‘랜팸’의 특징을 ‘랜팸’과 ‘TERF 입장’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랜팸’과 ‘TERF 입장’을 크게 구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4 두 논문에서는 모두 각각 10-20대, 20-30대 여성이 연구 대상으로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10-3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여성-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여성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명명하고 실천하는 집단은 너무나 다양하고, 특정 기준으로 묶인 집단 내에서도 각 개인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5 「페미니스트들의 ‘번아웃’ 호소를 통해 드러난 강남역 이후 페미니즘 운동의 정치학」(이정연, 2022)에서 ‘번아웃’을 “의료상의 정의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해석이 필요한 기표”로 바라보았습니다. 해당 논문의 관점에 따라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들이 우울, 피로 등을 호소하며 겪는 부정적 정동을 작은 다음표를 활용하여 ‘번아웃’으로 지칭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이질성(예시를 들자면 ‘랜팸’과 ‘쓰까’의 다름)을 페미니스트 공동체 내의 위협과 폭력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페미니스트 공동체란 ‘동일한 의견을 공유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동일한 의견’에 대해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거나 이질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편을 갈라 대립하기만 하는 상황 자체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TERF 공동체의 참여자들은 곧 온라인 공간이 그러한 의견들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알게 됩니다. 이에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랜팸’ 진영의 인플루언서와는 다른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경우 ‘싸불’(사이버불링)이라는 형태의 제재를 당한 후 ‘랜팸’의 입장을 따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자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랜팸’과 ‘쓰까’ 등의 ‘노선 갈등’, ‘완벽한 페미니스트’의 조건과 자기 모습의 괴리에서 오는 자기검열, 페미니스트 공동체에 대한 기대의 좌절 등으로 인한 ‘번아웃’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의 논문은 저에게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저는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의 자기 확신이 견고할 것이라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논문에서 드러나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TERF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고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정체화하기보다는 ‘TERF’ 입장에 가깝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의견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여자들은 트위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난 마음이 맞고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 TERF 입장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부여하고 반페미니즘적 백래시가 만연한 환경에서 이에 맞서는 도구이자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SNS의 매체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이들에게 가해지는 백래시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정답’을 말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때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이고, 이들의 권리 향상이 페미니즘의 목적이라는, 명료해 보이는 TERF 입장의 전제나 레토릭은 효율적인 논리와 언어로 간주되어 무기로서 적극 사용되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이 발화되는 온라인 환경에 대해 다시금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오고 가면서 확산되고, 글자 수 제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극적인 발언이 쉽게 발화되며, 이런 논리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타인을 공격하고 혐오하는 수단으로써 채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

인 공간은 페미니즘의 특정 ‘입장’을 따르고 그에 맞는 행동을 실천할 것을 강요하며 그 이외의 생각을 공유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쩌면 저는 타인에 의한 실질적인 위협을 받지 않았기에, 문우와 같이 페미니즘을 비롯한 여러 사회 의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비교적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았기에, 온라인상에서도 내 의견의 발화가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경험을 겪지 않았기에 TERF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제가 배운 것이 TERF 입장보다 더 ‘올바르고’ ‘정답에 가까운’ 페미니즘이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리해보니 지나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다르지 않은 부분이 생각보다 꽤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 발언을 수긍하고 답습한 것처럼, 저 역시 TERF 입장을 지지하는 —혹은 TERF 입장의 의견에 일부분이라도 동의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대화해보지도 않은 채 멋대로 판단한 모습이 말이지요. 그리고 둘 다 페미니즘의 ‘정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도요.

2. 바다에 울타리를 꽂아봤자

이쯤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글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심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누워버린 바람에 쓰지 못한 글요. 제가 더 이상 타자 치지 못하고 누워버린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글은 그저 비판에 그치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그 입장을 지지하는지, 혹은 왜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너희’로 단정 짓고 분리하며 ‘너희’의 주장은 틀렸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짚어 그 입장을 비판하려 한 것이 제가 쓰려던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입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책과 자료를 찾아보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다 포기하고 결국 실패한 것일지 모릅니다. 페미니즘의 어떤 답을 찾고자 TERF 입장을 자신의 ‘라인/정답/입장’으로 택하고, 어떤 것을 모델로 삼고 어떻게 행동해야 ‘정답’일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던 연구 참여자들처럼요.

TERF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마음먹은 때든, 이 글을 쓰는 지금이든, 저는 TERF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여성과 다른 이들의 정체성을 함께 고려하며 페미니즘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써보지만 저는 ‘쓰까’와 비슷한 생각을 지니는데, 페미니즘과 다른 학문을 접하면서 서로 다른 정체성은 남성중심주의/여성애중심주의/인간중심주의 등의 여러 뿌리 깊은 가시덩굴로 엉켜 있기에 이들을 억압하는 중층적인 구조를 사유해야만 하는 것을 배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실물로 마주친 적이 없는 모르는 상대일지라도, 그 사람이 미지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지 않았고, 부정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깊고 단단한 벽으로 서로를 막는 것으로 보이는 ‘캠캠’과 ‘쓰까’에서 ‘쓰까’에 더 가까이 위치한 저는 온라인 공간의 담론에서 완전히는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까지 ‘TERF’를 ‘저 먼’ 영역에 있는 소통 불가능한 외계인 정도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을 ‘너희’로 구분 지은 경계의 두께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견고하다고 느껴진 울타리가 생각보다 말랑하고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결코 나의 행동이 아님을 깨달았죠. 바다에 울타리를 박는다고 한들 바다가 나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울타리가 바다 저 밑에 닿지 못할 테고, 밀바닥에 닿는다고 해도 물결에 의해 허물어지겠죠.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3. 파도를 함께 마주하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이 글은 SNS에서 일기로 적을 법한 자기 고백에 불과한 글일지 모릅니다. 어떤 글도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고 모든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없듯이, 독자 중 누군가는 TERF 입장을 택한 이유를 알면서도 왜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자기를 ‘페’냐고 나무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TERF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을 왜 이해해야 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저도 TERF 입장을 알면 알수록 새로운 앎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겪는 중이라 당장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면 제대로 답변할 자신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고, 또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타인을 마주하면서 겪는 이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알면 알수록 모르겠고, ‘나’에게 혼란만 줘서 ‘너’를 회피하고 싶다고 느낄지라도, “‘너’는 ‘나’와 너무 다른 것 같아. 더 이상 알아가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단정 지은 채 ‘나’는 ‘너’를 두고 ‘더 올바른’ 페미니즘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페미니즘에는 딱 떨어지고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것도, 그리고 설령 정답이 있을지라도 ‘너’를 저 울타리 너머에 두고 가는 페미니즘은 답안지에 없을 것임을 알았기에, ‘나’는 ‘너’의 손을 잡지는 않더라도 ‘너’의 곁에 있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혼란을 몰고 오는 ‘너’(‘너’의 입장에선 ‘나’ 역시 또 하나의 거친 파도와 가깝겠죠.)를 마주해야, 정치적 입장에서 페미니즘은 현재의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사유해야, ‘나’와 ‘너’를 휩쓸고 가는 반페미니즘적 백래시라는 또 다른 파도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거대하고 넓은 담론장의 바다에서 우리는 여러 파도를 마주합니다. 유유히, 여유롭게 파도를 따라 헤엄쳐갈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대한 파도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파도는 현재의 페미니즘 담론장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높은 파도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 허우적대고, 물에 흠뻑 젖고, 온몸에 물이 찬 듯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도는 우리를 덮치는 동시에 울타리—‘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어 갈지도 모릅니다. 얕아지고, 움직이는 울타리를 따라 실제로 만나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파도를 넘어 새로운 물결을 따라 현재와 미래의 페미니즘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혹은 우리와 너 사이에

편집위원 포슬

르네 마그리트, 연인 II, 캔버스에 유화, 1928, 뉴욕 현대미술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엄마를 보면서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엄마가 **내** 이야기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지?”

- 해나 개즈비, 「나의 이야기」

0

일상을 침범하는 순간들이 있다. 하루분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 새벽 침대 위. 누군가와 대화 중 붕 떠버린 짧은 몇 초. 매일 같이 찾아오는 이러한 순간들이 관성적으로 돌아가는 삶을 절단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서사의 확립을 지연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나의 이해는 수많은 사건의 연속에 정초한다. 그러나 사건과 사건 사이, 서사의 진공이 발생하는 순간, 나의 시선이 밖이 아닌 안을 향해, 잃어버린 시간을 탐색하는 가교에서 ‘나’의 이야기는 일시적인 혼란에 빠진다. 타인은 이 빈 시간을 비집고 들어온다. 대화 중 일시적으로, 혹은 일과를 복기하던 중 뒤늦게 섬광처럼 나타나는 타인과 나 간의 해소 불가능한 차이는 일상을 경험하는 나를 (정치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확립하는 방식으로 세워진 서사를 해집는다. 내가 부유하는 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자신을 설명할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생각한다. 나의 경험, 나의 고통이 지닌 의미는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외려 이를 온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두 개의 범주는 반드시 같지만은 않다) 정위해야 함을 말하는 페미니즘의 구호이다. 글을 쓰기 전, 지난 몇 년간 접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글들이 과거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해석하여 고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글들은 고통의 근원을 ‘자신’—정체성 정치의 맥락에서는, 기실 자아와 동치되는 정체성—에 부착된 정치·사회·경제적 의미에서 발견하고 있었다. 구조에 의한 피해자-됨을 자각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됨의 역사를 발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나’를 정치적 존재로 구성하는 이야기의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근경은 이야기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출현한다. 나는 청중을 염두에 두고 발화한다. 청중은 나의 이야기를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해독한다. 따라서 나는 청중을 검증한다. 이에, 청중은 다시금 나의 말의 진위를 검토한다. 이 맥락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화한다는 것은 발화자와 듣는 자 간의 끊임없는 ‘파워게임’이다(비록 어떤 조건 하에서는 한쪽의 힘이 월등히 강할지라도). 이 때문에 오카 마리는 다음과 같이 증언의 성질이 말해진 것을 초과한다고 지적한다.

기억을 말한다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원리적으로 언어화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직 비유로서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증언’이란 이러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 ‘증언’을 듣는 것은 단지 말로 증언된 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소를 채우는 이러한 무질서하고 단편적이며 떠도는 생각 모두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¹

이렇듯 나의 이야기가 타인이라는 조건 속에서 기원한다는 점에서, 나는 말하는 자(자기-서사를 확립하는 존재)인 동시에 듣는 자(타인의 자기-서사를 감각하는 존재)가 혼재하는 존재이다. 이 혼재성은 어쩌면 타인과의 마주침의 시공간에서는 해소 불가능한 긴장이다. 솔직하게 나를 설명하려는 너 앞에서, 너의 고통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의 고통과 너의 고통이 맞닿아 있음을 감각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내가 너의 고통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담하고 있다는 감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너의 고통이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크기와 농도일 때, 그 무력감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² 이러한 고민은 곧, 고통의 말하기를 수행하는 당사자 앞에 선 비당사자의 고민과 연결된다.

1 오카 마리. 「타자의 언어」. 송태욱 옮김. 『흔적』, 2호, 2001, 396.
 2 “중군 ‘위안부’ 여성의 ‘신체의 심부’에서 솟구치는 아픔의 목소리에 가슴이파하면서, 그러나, 그 령기에 더욱더, 사건의 폭력성은, 그녀들의 그 고통과 그것에 대한 나의 ‘공감’은 그녀들의 ‘신체의 심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을 근거로 말해져야만 하지 않겠는가?” 오카 마리. 「Becoming a witness — 出来事の分有と「共感」のポリテクス」. 『現代思想』, 25권, 10호, 1997, 100쪽.
 이지형. 「마이너리티연구에 있어서의 당사자성 문제: 한센병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황단인문학』, 제4호, 2019, 87n19, 재인용.

이 글은 비당사자로서 윤리적인 고통의 말하기와 듣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김민조는 그의 글에서 무대, 무엇보다 단 한 명의 발화를 다수의 청중이 경청하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당사자 발화와 청자의 관계를 대변하는, 적확하지만은 않더라도 유용한 은유로 이해한다. 동시에, 그는 기존의 문법을 파훼하는 당사자 발화로서 해나 개즈비(Hannah Gadsby)의 「나의 이야기(Nannette)」를 조명한다.³ 동일한 작품을 관객의 입장에서 분석하려는 이 글은 그의 비평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자 첨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나의 이야기」를 처음 감상했던 후의 철나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시도이다. ‘공약 불가능’한 고통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혹은 취했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이 시도는 사적이고 공적인 장 모두에서 이루어졌던 잘못에 대한 후회이기도 할 것이다.

1

스탠드업 코미디의 원류는 20세기 초, 보드빌(vaudeville)⁴ 진행자가 관객을 상대로 진행하던 즉흥 만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전형적인 스탠드업 코미디의 형태는 밥 호프(Bob Hope)와 ‘보르시 벨트(Borscht Belt)’⁵ 희극인들에 의해 확립되었다 할 수 있다. 일상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어조로 1950년대 미국의 보수적인 시대상을 비판하는 코미디를 주로 삼은 이들을 통해 “영민하면서도 개인적이며 사회 참여적인”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한편, 1960년대, 스트림 클럽 혹은 나이트클럽 위주로 종교와 섹스, 마약 등의 소재를 다루다 일련의 법정 소송으로 몰락을 맞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럼으로써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레니 브루스(Lenny Bruce)와 그의 추종자들을 필두로, 반문화적 스탠드업 코미디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 등, 일상에서는 말하기 꺼끄러운 사회적 이슈

3 김민조.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스탠드업 코미디 〈해나 개즈비: 나의 이야기〉에 관해」. 『문학과사회』, 제33권, 4호, 2020, 75-76.
 4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성행했던 오락연예의 한 장르. 노래와 춤, 촌극 등 다양한 형식을 망라하여 구성되었으며,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많았다. “보드빌”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367&cid=40942&categoryId=33105>.
 5 1920-70년대, 유대인들이 휴양 차 자주 방문하던 지역인 ‘보르시 벨트’의 리조트에서 공연하던 일군의 희극인들을 일컫는 말. 유대인의 공통감각에 기반을 둔 코미디가 주를 이룬다. Joelle, Memoree. “SPIRITED: Comedy in the Catskills: Remembering the Borscht Belt.” New York Makers, 15 Oct. 2013, <https://newyorkmakers.com/blogs/magazine/comedy-in-the-catskills-remembering-the-borscht-belt>.

를 주 소재로 삼아 7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이들은 TV 출연 등을 통해 스탠드업 코미디를 음지의 문화에서 대중적으로 즐길 만한 장르로 확장시켜 나갔다.⁶

비록 그 황금기는 지났지만, 스탠드업 코미디는 (영미권에서) 여전히 폭넓은 마니아층을 향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장르이다.⁷ 주로 바 혹은 소극장에서 상연되는 스탠드업 코미디의 일반적인 형태는 발화자와 관중이 은밀히 공유하고 있는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다. 특히 2010년대를 전후한 미국의 정치 지형에서, 장르의 주류를 차지하던 레토릭인 ‘화난 남자’ 코미디⁸는 반지성주의적 트럼프 정부와 새로이 등장하는 소수자 집단을 동시에 겨냥하기 시작했다. 한편,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몇몇 ‘소수자’ 코미디언의 공연을 기록 및 방영하고 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민조는 스탠드업 코미디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 스탠드업 코미디가 대낮의 공간에서는 해소되지 못하는 욕망의 발산지를 넘어 당사자 발언—그러나, 당사자에게 흔히 기대되는 사회적 각본 너머의 맹점을 가격하는 것으로서—의 현장으로서의 성격 또한 띠고 있다는 것이다.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은 준비 단계인 전제premise 파트에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좌중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 당사자가 가질 법한 반응들을 관객이 예측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펀치 라인punch line⁹ 파트에 이르러 코미디언은 관객의 예측을 뒤집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혐오의 언어를 과장해서 흉내 내거나, 차별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식으로요.¹⁰

6 Zoglin, Richard. "Stand-up Comedy." Encyclopedia Britannica, 20 Dec. 2021, <https://www.britannica.com/art/stand-up-comedy>. Accessed 18 February 2023.

7 스탠드업 코미디는 매우 특정한 시공간과 그곳에서 통용되는 언어에 기대는 맥락적인 농담이 주를 이루는 장르이기에 문화권을 넘어 통용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니아층’ 및 여러 상황은 영미권에 국한된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도 여러 희극인들이 넷플릭스를 경유하여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도한 바 있으며, 연극계 및 여러 소수자 단체에서도 스탠드업 코미디의 양식을 적극 차용하여 여러 공연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카이브에서 3년째 상연되고 있는 ‘코미디 캠프’ 시리즈를 들 수 있다.

8 일상에서 맞닥뜨린 크고 작은 불편함 혹은 부조리함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형식의 스탠드업 코미디. 화자는 대개 백인 남성이다.

9 (주로 영미권의 농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구절.

10 김민조. 앞의 글, 78.

2

해나 개즈비의 「나의 이야기」는 소수자 발화의 급류 속에 그것을 비집고 선 작품이다. 1997년까지도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해졌던 호주 태즈메이니아 출신의 —이러한 명명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는 일단 괄호 속에 넣어둬도— 레즈비언 코미디언인 개즈비는 2017년, 해당 작품을 통해 돌연 코미디를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 제아무리 소수자들이 무대 위에 홀로 서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들, 코미디라는 장르의 문법은 고통의 온전한 해소를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즈비는 두 개의 삽화를 든다. 첫째는 그와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개즈비는 그가 커밍아웃할 당시 어머니의 반응을 흉내 낸다. “세상에, 해나, 왜 나한테 그걸 말한 거니? 내가 알 필요는 없는 일이잖니. 내 말은, 내가 너한테 실은 내가 살인자라고 고백했다면, 너는 어땠겠니?”¹¹ 이 반응은 개즈비의 첫 코미디 쇼였던 「뉴 게이 코믹 101: 나의 커밍아웃 이야기(New Gay Comic 101: My Coming Out Story)」에서 매우 효과적인 ‘펀치 라인’이었다. 그러나 이 삽화는 그 ‘펀치 라인’ 너머를 바라본다. 커밍아웃으로 인해 모녀 관계가 끊어졌으리라는 통속적인 기대와는 달리, 개즈비는 그의 어머니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친구와도 같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미디는 개즈비에게 있어 전략이었다. 그가 받아온 고통을 경감하는 전략(물론 그와 어머니 사이에는 그와 별개로 끊임없는 긴장과 대화의 순간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개즈비에게 한 말은 그의 내면에 그가 이제껏 기대 온 코미디에 대한 회의를 심는다.

내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너를 이성애자인 양 키워온 것이란다. 다른 방법을 몰랐어.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나는 너보다도 한참 전에 네 삶이 고통스러울 것을 알았다. 그걸 알고도, 아닌 척했다. 이제는 그랬던 것이 너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야 했던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바뀌길 원했기 때문일 거야. 세상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거든.¹²

11 Nanette, produced and performed by Hannah Gadsby, 2017, Netflix.

12 앞의 작품.

개즈비가 어머니와 맺던, 코미디라는 대화의 문법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농담’의 틀을 벗어난 어머니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두 사람을 이어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말의 분노 섞인 의문을 야기했다. 어쩌서 나 자신조차 황급히 봉합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을, 어머니는 자신의 서사 속에 안착시킬 수 있었던 것인가? 왜 내가 주인공임이 당연한 이야기 속 영웅은 어머니라는 타인인가? 어머니는 어떻게 그의 이야기를 그렇게 ‘쉬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수많은 물음 속에서 개즈비가 내린 답은 다음과 같다. 코미디가 그를 “영원한 청소년기”¹³에 붙박아 두었기 때문인 것이다.

두 번째 삽화 또한 ‘뉴 게이 코믹 101: 나의 커밍아웃 이야기’의 한 농담에서 시작한다. 개즈비와 대화하던 여성의 남자친구가 그를 (애인을 꼬시려는) 남성으로 ‘착각’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멸칭을 거론하며 욕하고 위협을 가하다, 여성임을 ‘깨닫고’ 한 발 물러섰다는 에피소드. 여기서 이 남성은 우연찮게 개즈비의 정체성을 알아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라진 명칭한 존재라는 점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남성의 무지를 꿰뚫어 본 개즈비는 그를 ‘조롱할 만한’ 위인이다. 그러나 개즈비는 이 농담이 온전한 진실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 에피소드는 한 명칭한 남자에 대한 농담이기도 하지만, 이 농담은 개즈비를 관통하는 수치심을 탈각하고서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긴장의 균형을 맞추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돌아왔어요. “아하, 이제 알겠군. 너는 여자 동성애자구만. 그러면 내가 너를 존나게 패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는 저를 존나게 패고 아무도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그런 짓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¹⁴

김민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코미디 장에서의 소수자는 그 자체로 긴장이며, 이 긴장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소할 것을 기대받는다. 개즈비가 행하는 작업은, 코미

13 앞의 작품.

14 앞의 작품.

디가 내포한 그러한 기대를 메타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이야기는 상시적인 긴장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관객에게 온전히 도달하기 위해서, 긴장의 해소는 지연되어야 한다. 개즈비가 트라우마적 서사를 복기하며 행한 “이제 이 긴장은 당신의 것”이라는 선언은 곧 고통의 이야기 앞에 선 관객에 대한 응답의 요구일 것이다.

3

흡스는 정치적 ‘대표’ 개념의 근원을 가면극에서 찾으며, 그 역할이 무대 위에 선 배우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마치 연극자가 자신과 무관한 텍스트상의 인물을 수행하듯, 특정 개인(주권자) 또한 일련의 계약을 통해 명백한 타인의 말과 행동을 이양 받아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¹⁵ 이렇듯, 흡스는 (주로 의제 인격을 중심으로 국가의 탄생을 해명하기 위해) 가면극의 연극자에서 정치인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대표성의 계보를 명시한다. 반대로, 페기 펠란(Peggy Phelan)은 가시성의 정치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타자화된 소수자를 재현함에 있어 (시각적) 유사성의 반복을 통한 재현이 타자에 대한 동일성의 환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중에서도 퍼포먼스는 동일성의 재생산을 결여한 재현이라는 점에서 타자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상상력을 내포한다고 서술한다.¹⁶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극을 정치와 결부시키는 방식이다. 연극은 가상을 표방한다. 그러나 동시에 연극의 인물은 실제의 정형을 반복함으로써 가상이되, 현실의 그림자인 가상으로서 행위한다. 특히 정치적인 연극의 경우, 관객인 우리는 인물 중 누군가에 현실의 균상을 대입하여 극을 해석한다. 그러나 이 동일시의 과정에서 일련의 오인이 발생하고, 텍스트와 그것을 재현하는 신체가 구분되는 만큼 그 오인이 특정 시점에서 깨지는 것 또한 필연적이다.

15 “인격(person)이라는 말은 라틴어이다. 그리스인들은 그 말 대신에 ‘프로소폰’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얼굴(face)’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라는 말이, 분장하고 무대에서 선 사람의 ‘가장(假裝)’이나 ‘외관’, 그중에서도 특히 가면이나 복면처럼 얼굴을 가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극장의 무대를 떠나 법정으로 가서, 극장의 무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말과 행위의 대표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격’이라는 것은 무대 위에서나 일상 회화에서나 배우(actor)가 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인격화하는(personate)’ 것은 자기 자신으로 ‘행위’하거나, 혹은 타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그 사람 이름으로 행위한다고 말한다.” 모니카 비르투 비에이라·데이비드 런시먼, 『대표: 역사, 논리, 정치』, 노시내 옮김, 후마니타스, 2020, 61-2, 재인용.

16 Phelan, Peggy. 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 Routledge, 2006, 3.

스탠드업 코미디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연기자’와 그 ‘배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김민조의 지적과 같이 ‘당사자의 말하기’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는 의미심장한 정치적 함의를 띤다. 대부분의 농담이 무대 위와 아래의 공통감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관객이 코미디언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변자’로 여기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공적인 장에서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무대라는 공동의 공간으로 불러내는 것으로서의 스탠드업 코미디. 방백에 가까운 퍼포먼스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솔직한’ 형태의 정치적 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의 초반부는 이 맥락에서 소수자인 개즈비가 ‘솔직한’ 정치의 장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한 각종 자조 농담으로 채워져 있다. “웃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카페 종업원의 이름이자 작품의 영제인 ‘나네트’가 대변하듯, 시대에 뒤떨어진 고향, 고지식한 레즈비언들, 개즈비 자신의 몸 등을 조롱하는 이 농담들은 코미디라는 암막 뒤 개즈비의 이야기로 관객을 초대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한 농담에 주목해 보고 싶다. 마디 그라(Mardi Gras)의 퀴어 퍼레이드를 텔레비전으로 처음 접한 개즈비의 에피소드를 다룬 농담이다.

마디 그라 [퀴어 퍼레이드]가 ‘동족’을 처음 접한 계기였어요. 작은 동네의 작은 거실의 텔레비전으로 봤는데요. (...) 제 ‘동족’이... 행진까지 하며 그들의 삶을 뽐내고 있더군요! 저는 늘 그걸 보며 생각했죠. “저것네, 내 ‘동족’들. 좀 부산스러워 보이네? 춤추고 노는 걸 참 좋아하나 봐. (...) 그러면 조용한 동성애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 동족에게, 파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은 너무 강해요.¹⁷

「나의 이야기」를 처음 봤을 당시, 이 농담을 듣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정도는 퀴어라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육방색이 대변하는 자긍심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싫어하며, 낯선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은 더욱 끔찍해지는 스스로의 상황과 더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벽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정 때문에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시성은 다소 꺼림칙

17 Gadsby, Hannah. 앞의 작품.

한 어감으로 다가온 감이 없잖아 있었다(드디어 나를 대변하는 코미디언이 등장하더니!).¹⁸ 그러나 작품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 농담이 개즈비의 전락이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 나는 당시의 내가 느낀 감정, 그리고 반응을 재고해야 했다. 내가 이 농담을 듣고 웃은 것은 정말 그를 조롱했기 때문이었을까? 오히려, 나의 반응에는 그에 대한 선긋기보다는, 그에게서 나 자신을 발견한 기쁨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러나 만약 기쁨의 웃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인에 의한 것일 터이다.

개즈비는 상술한 남성애에 의한 폭력, 그리고 차마 경찰서도, 병원도 찾아가지 못했던 과거의 사실을 증언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아이는 수치심 속에 깊이 빠뜨리고, 다른 아이에게는 혐오해도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건 순전하고 단순한 호모포비아가 아니었어요. 그건 젠더화된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여성다웠’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릇된 여자예요. 저는 그릇되었고, 그건 처벌해도 되는 범죄였습니다.¹⁹

18 “커밍아웃한, 자긍심 있는” 퀴어의 삶을 긍정하는 ‘가시화의 정치’는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레토릭은 가시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퀴어들의 삶을,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맥락과는 무관하게, “진실성이 없”거나 “퇴행적”인 것으로 낙인찍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리 그레이(Mary Gray)는 이브 코스프스키 세즈웁을 경유하여 “누군가가 가시화되고, ‘커밍아웃’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복적거리고 고군분투하는 ‘벽장’ 안에 머물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퀴어 내 정체성의 위계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존 조(John (Song Pae) Cho)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퀴어가 ‘가시화의 정치’와 맞닥뜨려 겪는 어려움을 기술한다.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커밍아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자긍심 대 수치심’, ‘지식 대 무지’의 이분법으로 축소될 수 없는 연민, 죄책감, 걱정 등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몇몇 게이 남성들은 부모가 죽고 나서야 커밍아웃한 후 ‘안전하’게 사는 일종의 유예된 게이 미래성을 택하기도 한다.

Shin, Layoung. “Avoiding T’ibu(Obvious Butchness): Invisibility as a Survival Strategy Among Young Queer Women in South Korea.” Queer Korea, ed. Todd A. Henry, Duke University Press, 2020, pp. 309-310.

19 Gadsby, Hannah. 앞의 작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나의 이야기」는 소위 ‘당사자’ 간에도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규범적인 외형을 지니고 귀여움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게, 개즈비가 겪은 폭력은 결코 매끄럽게 ‘나의 것’으로 치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문화의 차이, 젠더 규범 속 위치의 차이, 계급의 차이(혹은 위계)를 차치하더라도, 그가 경험한 폭력과 트라우마는 개즈비 자신의 것이며, 그의 몸에 새겨진 자신의 역사이다. 그것을 자신의 과거와 등치 할 권리는 나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없다. 이 맥락에서, 권김현영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후 역사를 도배한 포스트잇을 관찰하며 발견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실제 타자의 자리를 점유”²⁰한 현상은 나와 개즈비 사이의 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개즈비의 발언은 그의 긴장을 나에게 전도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매우 다른 밀도로 감각되었다.

4

해나 개즈비는 돌아온다. 코미디를 그만두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그는 2020년 「나의 더글러스(Douglas)」라는 작품으로 코미디 무대에 다시 오른다. 개즈비는 이 작품의 서두에서 앞으로 행할 모든 농담의 순서를 나열하며 공연의 장르를 ‘러브-코미디’라 명명한다. 바로 이전 작품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코미디는,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와 접속하게 되었는가?

이 작품에서 개즈비는 자폐 스펙트럼 속에 놓인 스스로의 경험을 더없이 발랄한 어조로 기술한다. 이 측면에서, 「나의 더글러스」는 한편으로는 ‘자조’의 영역에 들 수 있는 코미디가 어떻게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대한 실험이다. 개즈비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차이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관객에게 갑작스럽게 ‘던지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물론, 그 고통의 종류가 「나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이야기를 통한 완전한 해소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즈비가 이 작품에서 유발하는 웃음은, 적어도 나의 감각 속에서 수치심을 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긍심을 수행하는 코미디를 통해 웃음이 유통되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자조의 다른 측면을 비춘다.

20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p.66.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중 몇몇 차이는 취약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취약함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맥락에서 이야기는 늘 코미디에 선행해야 한다. 개즈비가 「나의 이야기」에서 지적했듯, 수치심이라는 감정과 그로 인한 고통은 이야기를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의 더글러스」는 농담의 다른 기능을 제안한다. “나와 다른 사람인 너를 욕망”²¹하는 이에게, 기습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침투시키는 것. 그러나 이는 오직 그 이야기를 듣는 개인이 나에게 대한 지향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 하에만 성립 가능하다. 이 맥락에서 개즈비는 코미디와 사랑을 병렬적으로 놓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애정에 기반한 자조에서도, 관객과 코미디언 사이의 긴장의 끈은 놓아지지 않는다.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 오카 마리가 지적하였듯, 고통은 절대로 ‘나’와 ‘너’ 사이에 평등하게 공유될 수 없으며, 오히려 나에게 강한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위계에 놓인 사람들 사이의 공감은, 따라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기인하기를 요청한다. 이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지향을 지닐 것과 더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언어가 개발될 것을 요구한다. 결국 애정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타자의 언어를 통역하는 끊임없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21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양효실 옮김, 인간사랑, 2013, p.62.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편집위원 유연

제1화. 성공적인 클리셰를 위하여.

웹소설은 재미있다. 오로지 재미만이 웹소설의 제1원칙이다. 업계의 구조상, 재미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웹소설은 출판 문학, 혹은 순문학이라 부르는 것들과 명백히 구분된다. 웹소설은 상업 소설이고, ‘팔리는 글’을 쓰는 사업이다. 오천 자 분량의 한 편당 백 원에서 이백 원. 독자들이 다음 화를 결제하게 만들려면 매 화, 매 순간이 재미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웹소설 창작에는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식이 존재한다. 그 공식, 즉 ‘클리셰’는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며, 다양한 변용을 거쳐 활용된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향 웹소설¹, 그중에서도 로맨스판타지(이하 로판)에 대해 다룬다.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은 소위 ‘순문학’이라 일컬어지는 출판 문학에 비해 본격적인 평론의 자리를 갖기 어렵다. 로맨스는 철없는 여성들의 로망으로, 판타지는 현실 도피 목적의 환상으로 자주 치부되기 때문이다.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한 웹소설 또한 문단계에서 진지하게 고려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중 문학은 기실 대중의 욕망을 가장 발 빠르게 반영하는 장르이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모든 장르가 포함된다. 로맨스와 판타지가 제공하는 환상은 결코 ‘무에서 창조된 유’일 수 없으며, 오히려 일상의 토양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독자에게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로판의 공식에서 우리는 되레 노골적이고 솔직한 사회의 면면을 읽어낼 수 있다.

수십 편의 로판을 꾸준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클리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웹소설 작법서를 펼치는 것이다. 작법서는 정갈하고 노골적인 언어로 성공하고 싶은 작가를 위한 클리셰를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다. 웹소설 작법서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제안한 로판의 클리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 로판 독자들이 예측하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클리셰, 그 속엔 과연 어떤 욕망이 녹아들어 있을까?

1 일반적으로 현대판타지, 무협, 스포츠물 등 남성이 주 독자층인 장르를 ‘남성향’으로, 현대로맨스와 로맨스판타지 등 여성이 주 독자층인 장르를 ‘여성향’으로 분류한다. 한편 김남영의 ‘매일 웹소설 쓰기’에서는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을 여성향으로, 남자가 주인공인 소설을 남성향으로 정의한다. 여성향과 남성향 소설 분류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 글에서는 여성 독자들이 선호하는 소설을 ‘여성향’이라 정의한다.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1화
유연

제2화. 12살에 부자가 된 황녀님.

가장 첫 번째로 논해야 하는 것은 ‘회빙환’이다. 산경은 “회빙환은 우리[웹소설 작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권장되는 길이다. 회빙환을 통해 주인공에게 능력과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쓴다.² 회빙환이란, 회귀·빙의·환생 셋을 묶어 줄인 웹소설 업계의 줄임말이다. 회귀는 인물이 자신만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가 어린 시절에서 삶을 재시작하는 것을, 빙의는 책이나 게임 등의 매체를 통해 이세계와 그 세계의 미래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그 세계에 이미 존재하던 인물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환생은 이세계에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 처음부터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정형화된 형태의 회빙환은 상업적 성공을 원하는 웹소설 작가에게 단순한 매력 그 이상의 선택지다.

앞선 인용에서 산경은 회빙환이 주인공에게 능력을 부여한다고 썼다. 여기서 ‘능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회빙환의 공통 지점을 짚어보자. 바로 기억으로 대표되는 지식이다.

회귀는 현재를 살다 과거로 되돌아간 인물의 이야기이고, 당연하게도 그 시점에서 인물은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은소로의 『검을 든 꽃』, 정유나의 『버림 받은 황비』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검을 든 꽃』의 주인공 에키네시아는 검사였던 기억을 가지고 회귀해 과거에는 막지 못했던 재앙을 막아내고, 회귀 전 짝사랑했던 남주³와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에키네시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출한 재능을 가진 검사로 대우받으며 주변의 선망을 받는다. 『버림 받은 황비』의 주인공 아리스티아는 과거 황제의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처형당한 후 열 살의 자신으로 회귀한다. 아리스티아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이전에 몰락했던 가문을 부흥시키는 데 성공하고, 황제의 사랑 또한 얻어낸다.

빙의와 환생의 경우 또한 그렇다. 이미 읽은 책에 빙의하는 책빙의물의 경우, 주인공은 독서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 밀차의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 했던 사정』

2 산경. 『실패하지 않는 웹소설 연재의 기술』, 위즈덤하우스, 2019, 48.

3 여자 주인공을 줄여서 ‘여주’, 남자 주인공을 줄여서 ‘남주’라 칭한다. 그러나 로판 독자층 사이에서 ‘주인공’은 대개 ‘여주’를 뜻하는 단어이다. ‘여주’에게 사랑을 주는 ‘남주’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잦으며, 로판의 주 독자층인 여성 독자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 주인공의 시선에 이입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사용한 ‘주인공’이라는 단어 또한 ‘여주’를 의미한다.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2화
유연



에서 주인공 레리아나는 전생에서 읽은 책에 등장하는, 죽음이 예정된 엑스트라 인물로 빙의한다. 레리아나는 독서를 통해 습득한 미래 지식을 바탕으로 죽음을 피해 가고, 그 과정에서 본래 소설 속의 여주를 사랑할 운명이었던 남주와 이어진다. 킨의 『여주인공의 오빠를 지키는 방법』에서 주인공 룩사나는 이전 세계에서 읽은 책 속 악역의 누나로 빙의한다. 룩사나는 자기의 위치와 미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책 속 여주인공의 오빠를 살리고, 결국 그 인물과 이어진다.

이처럼 주인공은 타인과 그 시작점부터 다르다. 회빙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타인이 어떤 노력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미래에 대한 지식은 주인공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월한 존재로 만든다. 미래 지식을 이용하여 주인공은 주요 인물의 호감을 사고, 파벌 싸움에서 승리하며, 복수에 성공한다. 오로지 주인공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 지식적 우월성이라는 ‘능력’에 더해 또 하나 주인공에게 부여되는 것은 계급이다. 대부분의 로판은 중세에서 근대 언저리의, 가상의 서양 세계를 바탕으로 한다. 여주는 빙의와 환생을 통해 지식뿐 아니라 계급마저 획득한다. 현대 세계에서 이세계로의 이동 후 황녀, 공주, 공녀 등의 계급으로 재탄생한 여주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계급을 이용한다. 회귀한 주인공의 경우 본래 고위 계급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경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급의 이용은 말할 것도 없다. 계급은 여주에게 사회적 뒷배경과 경제적 힘을 준다. 이는 여주의 확실한 성취를 보장하는 약속이다.

그뿐이 아니다. 계급은 독자들이 선망하는 서양 귀족의 삶을 보여준다. 욕망에 의해 취사선택된 삼페인과 티아라, 무도회와 나들이. 나아가 계급은 애정을 약속한다. ‘육아물’⁴ 장르가 대표적이다. 황녀 등의 지위를 가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로 다시 태어난 여주가 주변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장면을 작가는 몇십 화에 걸쳐 정성스럽게 묘사한다. 차소희는 육아물에 대해 “기본적인 골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주인공’이다. 내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막무가내로 굴어도 모두가 나를 예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서술한다.⁵

4 ‘육아물’이란, 회빙환을 통해 아기로 다시 태어난 여주가 주로 남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그리는 장르를 뜻한다. 2014~2015년 무렵 윤슬의 『황제의 외동딸』, 비추의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등이 인기를 끌며 이후 많은 파생 작품이 탄생했고, 현재에도 지미신의 『중매쟁이 아기 황녀님』 등의 작품이 거둔 인기에서 알 수 있듯 육아물은 여전히 웹소설 업계에서 유효한 장르 전략으로 통한다.

5 차소희. 『100만 클릭을 부르는 웹소설의 법칙』, 더 퀘스트, 2022, 147.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2화
유연



이렇듯 독자들은 눈에 보이는 계급에 열광한다. 계급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열광한다.

회빙환의 과정을 거쳐 획득한 범접할 수 없는 지식적 우위와 높은 계급이라는 요소를 독자들은 여주를 완벽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능력으로 더 우월해지고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상황의 카타르시스를 ‘사이다’로, 여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캐릭터에게 패배하는 상황을 ‘고구마’로 받아들인다. 그중에서도 독자들이 특히 즐거워하는 것은 ‘지식과 계급’을 이용한 ‘사이다’ 장면이다.

이지하의 『공작부인의 50가지 티 레시피』에서 클로에는 공작부인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하녀들에게 무시받는 처지이다. 클로에의 몸에 빙의한 여주는 ‘하녀의 뺨을 때림으로써’ 새 시작을 연다. 해당 화의 댓글에는 어김없이 ‘사이다’가 등장한다. 권경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귀한 주인공의 권력 투쟁은 복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게 한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인내, 순종, 온순함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추방, 유배 종내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제 회귀 주인공은 착함, 선함, 온순함, 순순함을 폐기하고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⁶

산소비의 『악녀는 모래시계를 되돌린다』에서 아리아는 여동생 미엘르의 계략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고 과거로 회귀한다. 아리아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트린 미엘르에게 복수한다. 그 복수를 독자들은 ‘사이다’라고 여긴다. 그들은 더는 착하고 선하게-어리석게 살지 않는 주인공에게 환호한다.

저 못된 악녀의 목을 내려치라 직접 지시했던 카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과거와는 반대로 제 친 여동생과 그녀의 사랑스러운 시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지 않은가. 이리도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과거가 아쉬웠

다.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어리석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불행한 과거를 갖게 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그 울분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늘에 감사했다. 과거를 경험한 덕분에 이리도 악랄한 악녀가 되지 않았는가.⁷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웹소설도 ‘사이다’만을 제공할 수는 없다. ‘고구마’는 독자를 답답하게 만드는 장면이고, ‘사이다’는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장면이다. ‘사이다’는 ‘고구마’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도 독자들은 ‘고구마’를 혐오한다. 따라서 웹소설 작가들은 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차소희는 “만일 한 회라도 고구마 전개가 있거나 인물의 앞날이 캄캄하다면 “하차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고 하며 고구마가 등장한 회차의 두 배만큼 사이다 회차를 넣기를 권장한다.⁸

또, 진문은 사이다만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글쓰기 기술들을 소개한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의 조언이다.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더라도, 주인공이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생략) 이렇게 연출하면 문제 상황이 주인공 앞에 펼쳐져도 독자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 주인공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쾌감을 느낀다. 주변 인물들은 패배에 빠져 죽어가지만, 주인공은 그 위기를 잘 활용하여 성공해 나가기에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⁹ 즉 고구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고구마는 절대 주인공의 성격이나 행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독자들은 사이다를 사랑한다. 정확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 이야기를 사랑한다. 그 사랑받을 자격이란 재력과 미모, 강함과 유능함이고 그것을 갖춘 사람이 여주이다. 독자들은 여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보상을 받는 이야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남주의 사랑과 함께 막을 내리는 해피엔딩은 여주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이다. 잘생기고 멋진 남주의 헌신과 애정은 여주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회빙환으로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일련의 흐름 속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용된 ‘능력’이라는 단어를 읽어냈다.

6 권경미.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 책벌의물과 회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84호, 2022, 109-140.
7 산소비. 『악녀는 모래시계를 되돌린다』. 카카오페이지, 2017, 99화.

8 차소희. 「100만 클릭을 부르는 웹소설의 법칙」, 더 퀘스트, 2022, 118.
9 진문. 「밀리언 뷰 웹소설 비밀코드」, 블랙피쉬, 2021, 219.



제3화. 이번 생은 유능하게 살겠습니다.

능력만능주의, 혹은 능력지상주의. 동시대의 많은 이들은 능력 좋은 개인이 무능력한 개인보다 더 많은 성취를 거두고 더 많이 분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더 나아가서는 능력의 유무와 정도를 재화 분배의 제1기준으로 삼는다. 공정과 평등을 논하는 이 주장은 일견 정당하게도 들린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이 능력주의에는 분명 석연찮은 구석이 존재한다.

우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것인가? 많은 경우, 사회가 ‘능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똑똑한 사고력, 천재적인 예술 재능 등의 능력은 대개 운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유전에 의해서든 아니면 타고난 것이든 그러한 종류의 능력은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운에 강하게 의존한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살리는 것에 긍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그 재능을 살릴 만한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 가정인 것, 더 나아가서는 재능이 쓸모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모두 운이 결정하는 영역이다.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인력거를 천재적으로 끄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현대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회는 노력을 숭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능력’은 결코 개인의 온전한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각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성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에 균열을 낸다. 유능한 개인의 성취는 정말로 합당하고 공정하며, 무능한 사람에게는—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존재한다면—성취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가? 앞 문단을 상기해보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 불합리하고 위험한 믿음이 아닌가?

다시 로판으로 돌아가보자. 회빙환과 계급을 돌아보면 그것 또한 운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에서 여타 ‘능력’과 다르지 않다. 여주의 회귀와 빙의, 환생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사건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불운한 사고로 죽은 여주는 이유 없이 이세계로 이동한다. 계급 또한 운 좋게 주어진 것이다. 우연히 빙의한 몸이 귀족이라서, 황녀라서 여주는 고위층이 된다.

그렇게 여주는 유능한 인물이 되어 성공을 거둔다. 그 반대 항인, 무능한 인물—악역—은 패배한다. 알파타르트의 『재혼황후』 속 악역인 라스타는 노예 출신의 여성으로 황제의 사랑을 얻어 황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3화
유연



후가 된다. 그 과정에서 본래 황후였던 여주가 밀려난다. 라스타는 노예 출신이므로 당연히 외교와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다. 반면 여주는 고위 귀족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황후 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물이다. 결국 ‘무능한’ 라스타는 황제의 사랑을 잃고 몰락해 판면에서 사라진다.

정유나의 『버림 받은 황비』에서 악역인 지은은 현대 세계에서 작중 세계로 이동한 여고생이다. 지은은 신탁을 통해 여주를 밀어내고 황후가 되었으나, 라스타와 마찬가지로 황후답지 못해 패배한다. 지은은 유능한 황후가 되기 위해 노력하나, 그 노력은 성취로 이어지지 못한다.

“매번 노력, 노력, 말만 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그놈의 노력은 대체 어디다 기울이고 있나? 처음에야 몰랐으니 그럴 수 있다 쳐도 사 년쯤 됐으면 이제는 좀 알 때도 되지 않았나?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뭐라 말을 좀 하려 하면 울기나 하고, 대체 그대는 제국의 황후가 뭐라고 생각하나? 황후라는 이름이 아깝다! 정말 그대가 신이 정해 준 내 반려가 맞기는 한 건가? 황비의 반의반만이라도 따라가 보라, 좀!”¹⁰

황제는 지은에게 노력을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일갈하며 여주인 황비와 비교한다. 이에 지은은 “나름 노력한다고 당신 안 볼 때 이 악물고 공부했어, 하루에 열두 시간도 넘게 거의 매일 공부만 했다고!”라며 울분을 토한다. 사실 현대에서 넘어온 지은이 평생 황후 수업을 받은 여주보다 ‘무능력’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은은 결국 그 무능력으로 인해 황제의 사랑을 잃고, 황후 자리를 잃는다.

독자들은 무능력함을 용서하지 않는다. 라스타와 지은은 운에 의한 무임승차자로 여겨진다. 즉 능력이 없는데 ‘운 좋게’ 돈과 권력, 사랑을 얻었으나, 그것은 교정되어야 할 부조리이므로 그들의 몰락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은 독자들에게 사이다를 준다. “솔직히 4년 동안 12시간씩 최고의 선생한테 배웠으면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능력은 개뿔도 없고 뭐만 하면 눈물쟁쟁” 등의 댓글들은 결과적으로 무능한 지은에게 황후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은의 ‘노력’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순간의 동정뿐이다. 그들은 일 잘하는 여주, 똑똑하고 특별한 여주가 응당 가져야 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약속된 자리를 돌려받기를 기다린다. 실상 여주의 ‘능력’ 또한 운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10 정유나. 『버림 받은 황비』, 카카오페이지, 2014, 1권 28화.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3화
유연



제4화.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단순히 웹소설은 능력주의와 영합하므로 읽지 말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글 도입에서 말했다시피 웹소설은 재미있어서 팔리는 소설이다. 김휘빈은 “회귀물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는 전능감 위주로 전개되었으나 점차 ‘실패와 좌절 없는 인생’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한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욕망이다. 갑질물이나 사이드물 역시 앞서 말했듯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쓰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결부된 욕망을 해소시켜 주는 웹소설이 작가에게 성공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¹¹

‘악녀는 모래시계를 되돌린다’의 주인공 아리아처럼, 여주가 과거를 후회하며 앞으로는 ‘악독하게’ 살겠다고 개심하는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사회상과 연관 짓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호구’라고 조롱당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를 원한다. ‘호구’가 되지 않고, 똑 부러지게 자기 몫을 챙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능력이라는 말, 공정, 성과를 낸 만큼의 보수, 정확한 분배.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우리를 끼워 넣고 싶어 한다. 누구나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진리라고 같아서 의심조차 할 수 없다. 원하는 만큼 유능한 세상,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환상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가장 솔직한 욕망은 이런 종류이다. 운 좋게 우월한 사람이 되고, 멋진 호화를 누리고, 헌신적인 상대의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웹소설을 읽는다. 여주의 성공에 기뻐하고, 실패에 눈물지으며, 연애에 환호한다.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의 틈새를 웹소설은 치밀하게 파고든다. 그렇기에 독자가,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욕망’에 대해, 그 욕망이 자리 잡은 토양에 대해 더 세밀하게 짚어보는 순간은 분명 필요하다.

김휘빈이 말했듯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상은 점점 더 완벽하고 엄격해진다. 웹소설 작가들은 독

11 김휘빈. 『웹소설 작가 서바이벌 가이드』. 이마, 2017, 121.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4화
유연



자들이 ‘고구마’를 건디는 횡수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주인공에게 이입하는 ‘우리’는 더는 ‘고구마’—즉 답답하고 유약하며 우유부단해서 실패하는 사람—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능력주의는 자주 우리를 배신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디선가는 노예 출신인 라스타일 것이며, 또 어디선가는 12시간씩 공부해도 ‘운 좋게’ 얻은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할 지은일지도 모른다.

변화하는 사회에 웹소설은 항상 발맞추어 걸을 것이다. 그 어떤 문학보다도 빠르게 달려와 독자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다. 여전히 회빙환이 유행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형태로 독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클리셰가 태어날 수도 있다. 모를 일이다. 우리는 로판 여주가 아니어서 미래의 지식 같은 건 알지 못하므로, 그때에도 웹소설이 새롭게 뿌리내린 토양을 살피는 글이 쓰일 것이다. 더 정교해진 능력주의를 읽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에도 유효할 사랑의 욕망을 분석하는 글일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 글의 제목은 어떤 여주든 간에 ‘행복해지는 법’이었으면 좋겠다.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법.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4화
유연





전쟁에 대한 전쟁

문우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아자, 아부, 루

베트남 전쟁과 마주하기

“한강의 기적과 감춰진 진실”¹

1953년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약 67달러(약 93,420원)였으나 현재(2021년 기준)에는 35,168달러(48,760,080원)로, 약 525배 증가하였다. 한국전쟁이 휴전을 맺은 당시, 대한민국은 심각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고,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때 한국은 독일 ‘라인강의 기적’에서 모티브를 얻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가히 빛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80년대에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을 맞으며 한국은 한 번 더 경제 도약을 이루어냈다. 현재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압축성장’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한국에는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화벌이에 나섰다. 그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정희 정권은 명목상 한·일 국교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굴욕적인 결과를 낳은 한·일 수교를 맺어 일본에서 무상원조와 차관을 받았다. 둘째,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독일은 더 이상 국내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한국은 마침 외화 획득을 위해 해외로 인력을 수출하길 원했기에 독일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았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에게 외화 획득이라는 임무를 떠넘기며 독일로 사람들을 파견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박정희 정권은 마지막으로 해외로 군대를 파병하였으며, 그리하여 한국은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였다. 이는 한국의 정치, 안보, 경제 등에 있어 아주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평가받는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 중 마지막으로 소개한 해외 파병을 주로 다룰 것이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경우, 당시 국내 언론이 보도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으로 얻을 이익에 집중했다. 그리하여 여당은 베트남 전쟁 파병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8년 만에 걸쳐 약 32만 명의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었다. 투입된 병사의 수가

¹ 박태균 저자가 저술한 『베트남 전쟁-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의 5부 제목을 인용하였다.

많은 만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대가를 받았다. 한국에게 베트남 파병은 호재와도 같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이니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베트남 파병을 토대로 이뤄낸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종종 현대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반대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폭력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과오를 비판하는 기사에는 언제나 '그래도 박정희가 경제 개발은 잘했다'라는 의견의 댓글이 달린다. 물론 박정희 정권이 해외 파병을 결정하고 추진하여 경제 개발의 토대를 다지는 데 기여한 바는 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전쟁 참전으로 얻은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점은 생명의 가치가 자본보다 경시되는 풍조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하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에 대해 침묵한 비판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끼친 영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의 서술 비중으로 미루어 볼 때, 민주주의 파트와 경제성장 파트에 고루 등장하는 박정희는, 잘못과 '업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논쟁적'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박정희의 업적이라 여겨지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다룰 때, 희생된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경제적 이윤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국의 교과서와 교육 방식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어긋난 기억

베트남 파병으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국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 용산 전쟁기념관의 베트남 전쟁 설명문은 박정희 시절의 낡은 구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는 '자주국방', '국위선양', '평화수호'라는 국가주의적 표현이 얼마나 공허한지 새삼 보여줄 뿐이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박정희 정권의 입장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격언을 진리로 여겼던 듯하다. 그러나 현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격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평화에 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이 격언은 당시 사회가 공유하던 전쟁과 폭력에 대한 상식에 전면 반박하는 것으로, 평화에 대한 논의가 이전보다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격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인 대부분이 베트남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서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발달하였지만, 우리가 두루 공유하는 베트남 전쟁의 기억 내지 감각은 변화하지 않고 구식의 것 그대로 남아 있을까.

우리가 기억의 특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흔히 개인이 가진 기억은 오로지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물처럼 여겨진다. 개인의 기억은 외부에 방해받지 않으며 또 그렇기에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라고 판단

된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소유한 기억은 때론 그렇게 지녀 온 믿음을 전면으로 깨뜨리면서 우리를 배반하기도 한다.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기억은 태초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데, 이는 단순히 일부분이 지워지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감쪽같이 새로 형성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개인의 기억은 외부, 즉 우리가 속한 집단 혹은 사회와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며 재구성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인이 기억하고 감각하는 베트남 전쟁의 '영광'이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영광'인지 낱말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베트남 파병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아 왔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 군인들이 입었던, 그리고 타인에게 입혔던 상처는 덮여 둔 채 베트남 전쟁을 통해 얻은 '성과'만을 내세우며,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시야를 차단한 것이다. 용산 전쟁기념관의 베트남 전쟁 설명문처럼 말이다.

베트남 파병의 목적은 크게 대외 관계, 안보, 그리고 경제 등의 측면으로 나뉜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들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보상을 얻어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알라딘의 램프'라는 멸칭을 붙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 파병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일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 군사원조 증가, 군사력 강화, 경제성장 등 더욱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중 소위 베트남 전쟁의 특수로 불리는 경제적 인 먼이 가장 조명된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익은 기존에 추진되던 산업화 전략 및 여러 상황적 요건과 만나 한국의 근대화를 가속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베트남 파병이 한국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그 국가적 이익을 따져보기 전에, 전쟁이라는 비극을 이익과 손실로만 계산하는 태도가 옳은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베트남 전쟁이 우리에게 제공한 모든 '이익'은 무수한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 전쟁에 직접적으로 동원된 군인들부터, 이제는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으로만 남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까지 말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다른 무엇도 아닌 전쟁을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종 전쟁 속 가해자였던 한국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고, 때로는 이를 무기 삼아 흥정까지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 과거를 뒤에 감춘 채 피로 얼룩진 상승 곡선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베트남 전쟁이 한국인에게 '국가적인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이미 전쟁 특수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경계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에 쉽게 분노의 감정을 공유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일본의 비인간성에 분개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비인간성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가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이 파병을 둘러싸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파병은 우리가 하지만, 돈은 일본이 쟁긴다'는 식의 소문을 냈다. 일본에 뒤처질 수 없다는 여론을 형성해 국제적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한참이 지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 논의가 이루어지던 때에도 다시금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가 주목받았다. 일본이 이번 전쟁에서 '야비하게' 무엇을 '가로챌' 것인지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많은 기사가 전쟁 특수 면에서 결코 일본에 질 수 없다는 논조를 보였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의 기억들은 또 다른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폭력 구도를 그대로 답습할 지라도 강국으로 올라서야만 한다는 당위를 촉구할 뿐이었다.

전쟁 다시 쓰기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일그러진 기억들은 해외 파병을 포함하여 전쟁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시대를 역행하도록 만든다. 적극적으로 기억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전쟁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모색하기 보다는 그저 이득을 쟁하기에만 급급할 것이다. 참혹한 전쟁 상황을 앞에 두고도 계산기만을 두드리는 사회에서, 어떻게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는가? 전쟁은 그 자체로 희생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전쟁으로 인하여 연을 이익에만 주목하거나 사람들의 죽음이 국가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여기는 관점은 결국 전쟁을 정당화할 뿐이다. 그리하여 전쟁 상태를 영속시키고 사람들이 군사주의적 사고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평화롭고 전쟁이 예외상황 같지만, 실은 그 반대이다. 전쟁이 일상이고 평화가 예외상황이다. 전쟁보다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한 국가의 입장에 서서 주어진 이익을 따지기보다 전쟁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폭력성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전체를 파악하고 규명하는 일은 당연히 순탄하지 않다. 그럼에도 비인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희생'에 초점을 맞춰 전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어떤 자세로 마주하여야 할까. 전쟁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은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비인간성을 답습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세상을 이분법적 구조로 바라보는 것은 워낙 흔하며 쉬운 일이고, 특히 전쟁에 있어서는 그러한 시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군/적군, 이익/손실, 선진/후진, 우월/열등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전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함을 기억하고 이에 저항하며, 이익과 국제관계를 이유로 얽히고설킨 전쟁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위에서 말했듯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공산주의 대 반공산주의의 대결이 아니다. 이 전쟁에는 국가 발전을 위한 자본을 얻으려는 비열한 욕망이 녹아 있다. 우리는 국가가 기존 교과서를 통해 장려하는 해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기억하고 연대하고 상상하기

① 전쟁에 얽힌 사람들을 기억하기

우리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나 자신이 죽는다는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폭력성을 분출한다. 전쟁은 존재 자체가 반(反)윤리적이다. 승자와 패자를 떠나, 결국

전쟁은 존재 자체로 엄청난 희생을 야기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고 연대하고 상상하는 일'이다. 그중 '기억하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베트남 전쟁과 연관된 수많은 사람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기억해야 한다. 자본을 향한 욕망으로 점철된 베트남 전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 있으나 국가나 이념이라는 큰 틀에 가려져 정작 그 안의 사람들은 쉽게 잊혀진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체 뒤에는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수많은 군인이 존재한다. 전쟁 트라우마는 물론, 미군이 뿌린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상당하다.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에는 선천성 구개파열, 다지증, 탈장 등이 있으며, 참전군인뿐만 아니라 참전군인의 자녀들에게도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그 피해를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고엽제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은 아직도 국가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 전쟁은 한국인에게 있어 아픈 기억이기도 하며, 한국은 분명한 피해자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베트남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해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는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 혹은 참전군인의 유족들이 그 근거일 것이다. 그러

나 우리는 한국 역시 미국의 편에 서서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정하여야 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만행에 관하여 끊임없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성추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칼로 도려내는 등,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수도 없이 저지르고 돌아왔다. 한국군이 저지른 만행은 너무나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사례만을 몇 가지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 팡남성에 위치한 고노이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한국군은 한 가정집 마당에 민간인들을 몰아넣고 35명을 쏘아 죽였으며, 나머지는 인근 비밀 방공호 안에 몰아넣고 수류탄을 던졌다. 비슷한 시기 풍니-퐁넛 마을에서도 한국군이 주민들을 모두 모이게 한 뒤 총을 난사한 일이 있었다. 이날 풍니-퐁넛 마을에서만 74명의 민간인이 죽음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인근 풍록 마을에서도 10여 명이 사살되었으므로 풍니-퐁넛-퐁록 마을 학살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10일 뒤에 일어난 하미 학살은 특히 잔인한데, 하미 학살은 대량 총살로만 끝나지 않았다. 한국군들은 하미 마을에 불을 질러 마을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이날 146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하미 학살이 참혹한 이유는 단지 불을 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학살 당일 생존자들이 일종의 장례식으로써 시신을 알개 묻어주었는데, 이것이 한국군의 심리를 거스른다면 다음날 불도저를

끌고 영성한 무덤들을 짓밟으며 미처 묻지 못한 주검들마저 밀어버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 가지 사건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학살과 범죄의 아주 작은 일부이다. 다만 그나마 ‘알려진’ 사건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한국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이 가진 폭력성과 전쟁에 참여한 인간이 보이는 비인간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많은 희생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이익에 눈이 멀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한국군이 잔인한 학살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에서 우리가 보였던 비인간성을 감추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비인간적인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저분한 과거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7일, 한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전쟁에서 드러난 인간의 비인간성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을 모두 가진 ‘우리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다양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2015년 4월 초,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이들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으로 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니들을 만났다. 이들이 당하고 목격한 학살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들은 전쟁 피해자의 괴로움과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공감했다. 또한 같은 피해자로 만나서 반갑다며 기꺼이 아픔을 나누었다.² 때는 베트남 전쟁 종전 40주년이자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편, 이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의 흔적과 현지 주민의 삶을 기록해온 이재갑 사진작가가 사진전을 열어 초대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진전 개막식은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는데, 앞서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을 동시에 가진, 양면적인 단체로 언급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를 비롯하여 300여 명의 참전군인들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글라스와 군복을 입은 채로 군가를 틀고 고함을 질렀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 전우회들은 응우옌티탄 씨와 응우옌떤런 씨가 한국에 머문 일주일 내내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며 고함을 치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한국에 방문했던 탄 씨와 똌 씨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울먹였다. 그러던 중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갑 사진작가는 한국인 중에도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사회적 기업 ‘아맘’의 구수정 본부장은 탄 씨가 “이제 한국인들이 무섭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연대의 장은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확신을 줄 수 있다. 지난 2022년 8월 11일에 문우 편집위원들은 한베평화재단에서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베트남 전쟁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와 목격자 응우옌똌찌이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탄 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베트남 전쟁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며칠 전(2023.02.07) 재판부가 1심 선고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보통은 학살의 흔적조차 없애버리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내기가 어려운데, 탄 씨가 속한 풍니-퐁넛 마을의 학살 사건은 유독 증거가 많아 그간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탄 씨의 승소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배상 소송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편집위원들은 진실 규명의 가능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데에 큰 의미를 두었고 무엇보다 탄 씨를 직접 만나 뵈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탄 씨는 자신들의 “여정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많은 응원을

2 박기용. “베트남전 학살 생존자와 보낸 일주일... ‘저희는 심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15.04.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6392.html.

보내주시길 바란다”³고 부탁했다. 득찌이 씨 역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에 (...)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만나서 고통을 위로해줬으면 좋겠다”⁴고 말했다. 좌담회에는 문우 편집위원들을 제외하고도 적지 않은 인원이 있었고, 기자들도 몇몇 있었다. 그들 모두가 베트남 전쟁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연대하고 있었다. 응우옌티탄 씨와 응우옌득찌이 씨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안에서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 좌담회의 의미는 충분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마련되길 희망한다.

공감과 연대를 저지하고 위협하는 집단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1980년 5.18 당시 광주에서 군인이 시민을 학살하는 비극을 예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지적”⁵이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국가폭력들은 모두 이어져 있다. 지금 바로 잡지 못한다면 또 다른 국가폭력의 비극을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폭력

의 피해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편에 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연대의 장을 자주 마련하여야 한다. 전쟁의 진실은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비극을 제대로 대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살아있던 사람들을 마주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삶에 스민 전쟁의 평범성을 마주해야 한다. 또한 군인, 민간인, 난민들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목격한 바, 경험한 바, 느낀 바에 대해 듣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작성되었다.

③ 평화에 대한 상상을 멈추지 않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화상태’일까? 평화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현재가 평화롭거나 혹은 평화롭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이 평화로운 정도는 ‘평화/비(非)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처럼 나타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이 내린 평화의 정의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국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 정보, 감각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평화상태를 어떻게 정의하였든 간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바로잡고 전쟁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평화를 상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현재 지향하는 평화가 이상향이자 최선이라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과거에 인간의 권리라고 여겨졌던 가치가 현대에 와서 ‘그 가치는 인간의 기본

3 문우편집위원회가 2022년 08월 11일 참여한 한베평화재단 주최 좌담회 당시, 응우옌티탄의 말.
4 같은 날, 응우옌득찌이의 말.
5 김덕련,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첫 방한.” 프레시안, 2015.03.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5114>.

적인 권리라고 칭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듯이, 평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현재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 아닐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발전된 평화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평화를 상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한반도는 몇십 년간 분단체제를 유지해왔고 한국인들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와 사회에게서 북한이라는 타자의 침입 가능성과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주입받았기 때문이다. 적의 존재가 일상에서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출현하는 적의 언설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정서구조를 만든다.”⁶ 이는 ‘우리’가 아닌 존재를 색출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방인’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두루 공유하고 있다. 한국인은 ‘우리/그들’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에 익숙하다. 흔히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혹은 단체를 ‘빨갱이’라며 매도하는 논리는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군사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분단국가하에서 여러 영

6 김엘리, 「분단된 마음, 군사주의와 페미니즘」, 『분단극복을 위한 집단지성의 힘』(한국문화사), 2018, <https://momotepi.org/blogPost/untitled-73>.

향을 받아왔기에, 우리의 ‘평화’에 대한 관념 역시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상상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머나먼 미래의 것일지라도, 우리는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화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3세대 인권 중 하나인 ‘평화권’⁷을 향한 노력이기도 할 것이다. 평화를 상상한다는 것이 자칫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담론으로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상상을 멈추지 않는 일은 평화의 발전을 촉구하는 데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엇보다 구체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 평화를 향한 상상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7 “추상적 가치인 평화가 침해될 수 없는 권리로서 보장됨을 의미한다. (...) 아직 확립된 권리가 아니며 권리로서의 효력 역시 불명확”하다. 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경제와사회』, 통권, 91호, p. 167.

편집위원 노랑

이어지고 싶으니까



* 애니메이션 '사라잔마이' 및 '돌아가는 펭귄드림'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각 개체로 구분된 이상 필연적으로 남과 단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건조한 사실이 세상과 만나면 달갑지 않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세계에는 언제나 어떠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넘쳐나지만, 필요한 자원은 희소성을 띤다. 그러므로, 그것은 남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하고, 필요한 자원을 냉정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을 철저하게 '나'와 분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악순환 속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 경쟁을 통해 짓밟거나 짓밟혀본 적 있는 우리는 이미 경쟁이 가진 비열함에 대해 알고 있다. 모두에게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을 위해 경쟁해본 적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 경쟁이 개인의 심신과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안다.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모두에게 자원이 골고루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원을 빼앗기는 쪽은 대부분 소수자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여성,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 등의 사례로 보면 자원은 기득권층에게 편중되고, 주변부의 존재들에게는 더욱 희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이 세상은제로섬 게임'이라는 세계관이다. '한정된 양의) 파이 조각을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는 비유처럼,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은 하나의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가지고 있을, 혹은 타인이 가지게 될 몫을 내 앞으로 끌어오는 데에만 전념하게 된다. 더 높이 올라가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렇기에 모두가 자신의 몫을 늘리고자 타인을 돌보기보다는 밀어내는 세상에서, 소수자들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기가 더욱 어렵다. 온갖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재산의 부족, 여유 시간의 부족, 범죄의 위협 등의 이유는 연결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상황을 바꿔보려 기득권층을 향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연결을 시도해도 그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내어주기 '어렵다', '싫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심지어 그 목소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로지 정해진 몫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그저 '타자'일 뿐인 타자와 싸우고 또 싸우는 것뿐일까? 절대다수가 패자가 되는, 파괴와 좌절의 끝없는 싸움뿐인 걸까? 이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없을까?

픽션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현실에 없는 장면을 상상하고 기록해 그것이 실제 현실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일러문', '소녀혁명 우테나' 등 다수의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이쿠하라 쿠니히코 감독의 2019년 작 애니메이션 '사라잔마이'를 통해 미흡하게나마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유일한 하나의 파이를 갈라 먹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서로와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은 무엇일지 픽션을 통해 상상해 보자.



'사라잔마이'의 세 주인공인 카즈키, 쿠지, 엔타는 각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



2019. 사라잔마이(원제: 사라ざんまい). MAPPA, 라반트랙.

'사라잔마이'의 한 장면. 왼쪽부터 엔타, 카즈키, 쿠지가 나란히 보인다.

카즈키는 현재의 가족을 구성하는 엄마와 생물학적 혈연이 아니며, 카즈키의 동생은 카즈키를 쫓아가던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고립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카즈키를 괴롭힌다. 따라서 카즈키는 가족의 사랑과, 동생의 안녕을 쟁취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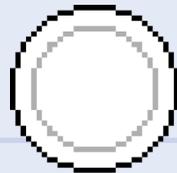
쿠지와 쿠지의 형 치카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마약 유통 등의 꺼림칙한 일에 손을 대며 근근이 삶을 이어 나간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팔지 않기 위해 뒷세계의 돈을 빼돌린 형 치카이 때문에,

쿠지는 어린 시절 뒷세계의 인물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다가 그만 상대를 죽이게 되고 이 살인에 대한 혐의를 형인 치카이가 동생 대신 뒤집어쓴다. 쿠지는 형과의 유대가 이어지기를, 이 가족이 안녕하기를 바란다.

엔타는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던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준 동성 친구인 카즈키를 짝사랑한다. 카즈키는 잠에 든 자신에게 뽀뽀하는 등 엔타가 명백히 자신을 좋아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도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벌칙에 걸려서 했던 행동인 걸 안다면서 아무런 놀람도 없이 웃어넘긴다. 따라서 엔타는 자신의 사랑을 이루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카즈키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라잔마이’의 세계에서는 갖파라는 요괴가 만들어낸 ‘접시’만 있다면 어떤 소원이든지 이를 수 있다. 다만 이 접시는 단 하나의 소원만을 이루어 줄 수 있으며, 소원을 이루고 나서는 깨져버린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접시가 이루어 줄 수 있는 소원은 한정적이다. 그리고 늘 그렇듯 소원은 여럿이다.

즉 접시는 세상의 존재들에게 필요한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이다. 각 인물들이 전형적이지 않은 가족을 이루고 있거나, 마땅한 양육자 없이 빈곤을 겪으며 비행 청소년으로 살고 있거나, 동성을 사랑하는 소수자의 위치로 설정된 것도 이 비유를 뒷받침한다. 현실처럼 ‘사라잔마이’에서도 역시나 각자에게 주어진 자원, 접시는 한정되어 있다. 돈, 지위, 일자리 등과 마찬가지로 ‘사라잔마이’의 접시는 한쪽이 차지하면 다른 한쪽이 얻기 어려운 재화이다.



이쯤에서 현실로 돌아가 보자. 예시로 채용의 경우, 한쪽이 합격하면 한쪽이 떨어져야 하는 정원제이므로 꾸준히 그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업자가 노동자의 특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고용 법률이나¹,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여성이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존재한다.² 이러한 특정 집단의 채용 보장을 위한 법률의 존재 자체와, 차별적 고용 및 해고 사례는 사회의 모두가 어떠한 형태의 자원이든 그것을 위해 부단히 싸우고 있으며, 특히 소수자들에게 그러한 싸움은 힘겹고 어려움을 보여준다.

‘사라잔마이’의 제작 전, 이쿠하라 쿠니히코 감독이 2011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 ‘돌아가는 펭귄드림’에서도 ‘사라잔마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여기서도 접시와 같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물건 ‘핑드림’이 등장한다. 접시를 얻으려는 ‘사라잔마이’와 마찬가지로 각 인물들은 펭드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돌아가는 펭귄드림’에서는 주인공 중 둘이 펭드림을 넘겨주고 죽게 되며, 살아남은 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채 이야기가 종결된다.

하지만 비슷한 포맷을 가진 애니메이션임에도 ‘사라잔마이’에서는 주인공 셋이 모두 생존한다. 또한 마지막 화에서는 그들이 겪을 법한 미래들이 묘사되고, 실제로 쿠지가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엔타와 카즈키를 다시 만나 우정을 이어가

1 “장애인 고용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5&ccfNo=3&cciNo=1&cnpClsNo=1>.

2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79&ccfNo=1&cciNo=1&cnpClsNo=1>.

는 장면도 등장한다. ‘돌아가는 펭귄드림’이 아니라도 희생을 통해 무언가를 쟁취하는 클리셰는 익숙하고, 자주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도 왜 ‘사라잔마이’에서는, 주인공 모두가 생존하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었을까?



먼저 ‘사라잔마이’의 인물들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기길 강요하는 세상에 이들은 실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저항하였다.

접시를 만드는 갓파와 대치하며 모든 연결을 끊을 것을 주장하는 세력인 물족제비가 카즈키의 동생 하루카를 잡아갔을 때, 카즈키는 하루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루카를 대신해 목숨을 내놓고 물족제비의 방식대로 영영 잊히려고 한다. 그러자 쿠지와 엔타는 카즈키를 저지하고, 카즈키와 하루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후에 카즈키가 또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할 때에는 아예 엔타의 입에서 “바보야, 자기희생 같은 촌스러운 짓 하지 마”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마치 누군가가 희생하여야만 다른 누군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누군가의 희생을 막고자 노력한다.

‘돌아가는 펭귄드림’에서도 서로를 도우려는, 세계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가장 중요한 펭드림은 결코 나눌 수 없으며 누군가가 포기해야만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재화로 묘사된다. 결국 그들의 저항은 타인을 밟고 올



2019. 사라잔마이(원제: さざんまい). MAPPA, 라반트락.

‘사라잔마이’의 한 장면. 갓파로 변한 상태의 엔타가 카즈키에게 “바보야, 자기희생 같은 촌스러운 짓 하지 마”라고 말한다.

라서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희생해 다른 사람에게 재화를 전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희생한 이들은 죽는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한 셈이다. 앞서 설명한 ‘자발적’ 희생이라는 저항이 바로 ‘돌아가는 펭귄드림’이 현실의 세상을 비트는 지점이기는 하나, 여전히 희생한 이들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소수자가 미래를 구성해내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비유로도 볼 수 있다.

이 희생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함의는 ‘사라잔마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과는 다르다. 희생을 최대한 모면하려고 노력하는 ‘사라잔마이’에서도 접시는 나눌 수 없는 재화로 묘사되고, 누군가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에 접시를 놓고 겨루는 것은 자신 대신 총을 맞아 곧 죽게 되는 엔타를 살리려는 카즈키와, 뒷세계의 적들과 싸우다 역시 총을 맞아 이미 죽게 된 형 치카이를 살리려는 쿠지 둘이다. 접시를 들고 있었던 것은 카즈키이고, 쿠지가 카즈키를 총으로 협박하지만 엔타의 상태가 위급했기에 카즈키는 엔타를 살린다. 현실적인 자원의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종결된다면 이것은 그저 비극이다. 하지만 그들은 희생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도 희생이 반복되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 노력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접시 나누기, 파이 나누기의 논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제로섬 게임의 논리대로였다면 자원을 얻지 못한 쿠지에게 다른 일종의 ‘구제책’은 없다. 앞으로도 카즈키와 쿠지, 엔타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며 절망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카즈키, 엔타, 쿠지는 모두 살아남았고, ‘사라잔마이’의 주인공들은 제로섬 게임의 논리가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하게 두지 않았다. ‘사라잔마이’의 마지막 화에서는 주인공들의 미래가 그려지는데, 그들은 작품 내내 접시로 비유된 특정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짓밟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셋은 끝까지 서로의 연결을 지키려 한다. 서로를 겨냥하며 높이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갈등하면서도 함께 모두가 품은 꿈이었던 축구선수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자원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길 강요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보이는 세상을

빠져리게 경험했음에도, 자신들의 미래를 통해 세상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다른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저항하였다. 현실에 부딪히더라도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현실에서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는 희생당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제로섬 게임의 시선으로 희생시키지 않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대학 페미니스트 연합 모임 ‘유니브페미’는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면 남성의 인권은 ‘낮아진다’는 페미니즘에 대한 흔한 오해를 부정하고 우리의 페미니즘은 누군가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³ ‘유니브페미’의 말처럼 특히나 인권은 누군가의 인권이 보장받겠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의 인권이 낮아져야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경쟁 사회에 익숙해진 우리의 시선이 학습된 위기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학 소장은 제로섬 게임을 강요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가 점차 포지티브섬 게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⁴ 모두가 포지티브섬 게임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은 당연하게도 세상이 언제까지나 제로섬 게임처럼 굴러가야 한다는 인식에 저항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인권을 ‘갈라 먹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제로섬 게임의 원리와 닮은 모양으로 굴러가는 세상의

3 신혜정, “‘여학생·남학생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한국일보, 2019.9.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9021238025619>.

4 김지학, “[다양성 끌어안기] 인권의 정신: 자유평등박애와 라이시테(2)”, 투데이신문, 2020.11.10,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48>.

일면들도 바꾸어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출발선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라잔마이’의 인물들이 생존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주인공 세 명이 서로를 ‘타인’으로 두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의 욕망과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전해 들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라잔마이’에서 접시를 얻기 위해서는 ‘갓파 좀비’라는 일종의 몬스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서로의 기억이 공유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가 품고 있는 욕망을 나누게 되거나, 가끔은 설명해야만 했다.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해서 네가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것을 질투해, 나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마지막 남은 혈연의 유대를 지키고 싶어, 등등.

처음에는 그들도 당황하고, 서로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을 불편해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서로의 이야기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단절을 넘어서 연결될 수 있었다. 공유된 기억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들었기에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었다. 반면 ‘돌아가는 팽귄드럼’에서는 각자의 소망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훨씬 적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미래를 잃었다.

실제 세상에서도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소수자의 목소리는 묻히기 쉽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등 수많은 이유로

단식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는데도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라잔마이’의 인물들은 공유된 욕망과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이러한 경험 위에 서로를 이어주는 유대감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 덕분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축구를 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 카즈키가 엔타를 살렸을 때에도, 쿠지가 자신의 형을 살리고 싶어 했을 때에도, 서로의 사정을 낱알이 알고 있었다. 엔타를 살린 직후 쿠지를 걱정하는 카즈키에게 쿠지는 “알고 있어, 내가 너였어도 진나이(엔타의 성씨)를 살렸어.”라고 말한다. 자원이 한쪽에게만 주어졌더라도 그들은 결코 남이 아니었다. 불가피한 경쟁을 벌였을 때에도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도 이어지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말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었다.

현실에서도 목소리를 전하고 들으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바로 앞의 글 “전쟁에 대한 전쟁 : 베트남 전쟁과 마주하기”에서 언급된 한베평화재단 주최의 좌담회가 그 예시이다. 좌담회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로부터 생존한 피해자 응우옌티안 씨와 목격자 응우옌득찌이 씨는 문우편집위원들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과 만나 자신이 겪은 학살과 피해에 대해 나눌 수 있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어떠한 마음인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말하면, 그 모든 말을 듣고, 연대하는 자리였다.⁵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주최한 ‘성폭력생존

5 김남기, “베트남 피해자, 한국 떠나기 전 남긴 말 “한국군에 가족 잃었다””, 오마이뉴스, 2022.8.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7045.

자말하기대회'처럼, 성폭력의 생존자들과 연대자들이 모여 말하고 듣는 자리들도 있다.⁶ 이렇게 말하기와 듣기의 경험이 거듭될수록 서로의 욕망과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쌓이게 된다. 우리가 더욱 연결되고 연결에 능숙해질수록 미래는 다채롭고 새로워진다.



반면 '사라잔마이'에는 앞서 말한 제로섬 게임의 부정이나, 서로의 단절을 넘어 욕망과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해 듣는 행위를 전혀 실천하지 않는, 오히려 이에 명백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인물도 등장한다.

쿠지의 형 치카이는 뒷세계의 돈을 벌러 다니며 쿠지에게 여러 범법적인 일을 시키는 장본인이다. 쿠지는 치카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며 그를 돕지만, 치카이는 쿠지와 제대로 소통하지도 않고 자신이 지내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지도 않는다. 게다가 죽기 전, 뒤탈을 없애기 위해 치카이가 뒤집어쓴 살인의 진상을 알고 있는, 나이가 어리고 순한 심복 하나를 총으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이 모습을 본 쿠지가 왜 그 녀석을 쏘았냐고 하자, 그는 '그 아이는 이 세계에서 못 살아남기에 죽었다'고 항변한다. 총격전을 벌인 후 쿠지는 "잘 안 풀릴 땐 다 버린다"라고 말하는 치카이에게 질문한다. "동생인 나도 버릴 거야?" 치카이는 쿠지의 이마에

6 김푸름, "'아픈 걸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성폭력 상처 드러낸 생존자들의 '말하기'", 여성신문, 2017.11.28, <https://www.sisters.or.kr/activity/ability/2525>.

총구를 겨누며 말한다. 이 세상은 나쁜 놈이 살아남는다고. 총격전을 벌인 뒤 도망쳤던 뒷세계의 잔당이 먼저 치카이를 쏘아 쿠지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자 강력한 유대의 대상이었던 형에게 '착한 놈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총구가 겨누어진 쿠지는 마음속 어딘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 후 접시로 엔타가 살아나고, 쿠지는 여러모로 좌절하여 세상과 단절되려고 한다. 이때까지 충분히 소통하지도 못했던 형에게 '타인' 취급을 받음으로써, 밟고 올라갈 상대라는 시선을 받음으로써 연결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쿠지는 타인과의 이어짐을 거부하고, 남은 유대의 대상인 엔타와 카즈키를 만났던 과거의 자신과 첫 만남까지를 지워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한다. '사라잔마이'의 세계에서는 것파와 대립하며 연결을 지향하지 않는, 마치 악의 세력 같은 물족제비 족이 등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누군가가 세상과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으면 '이 세계에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되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없었던 일이 된다. 즉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쿠지는 이러한 연결의 특성을 인지하고 자신과 세계의 모든 접점, 즉 유일한 유대였던 카즈키와 엔타와의 기억을 지워 영원히 사라지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연결이 쿠지를 미래로 나아가게 했다. 영영 사라지려는 쿠지를 쫓아온 카즈키와 엔타는, 물리적으로도 고리 즉 연결의 모양새이고, 맥락상으로도 카즈키와 쿠지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간직해 연결의 시작점을 의미하게 된 물건인 발찌를 전하며 단절을 막는다. 이미 끊어진 발찌이지만 카즈키와 엔타는 이를 다시 묶어서 쿠지에게 건넨다. 잠깐 세상에서 지워지는 과정을 겪으며,

쿠지는 자신의 진짜 마음은 ‘이어지고 싶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 그리고 카즈키와 엔타, 쿠지 셋 모두가 이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함으로써 쿠지의 존재는 지워지지 않는다.

따지자면 ‘사라잔마이’의 인물들도 치카이와 엔타 둘 모두를 살려내진 못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죽게 된 치카이가 연결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 곱씹어 볼 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모님이 모두 죽은 뒤 뒷세계에서 살아 가며 타인을 믿지도, 타인에게 자신의 욕망을 나누지도 않고, 제로섬 게임에 순응 하며 나쁜 놈이 살아남는다고 습관처럼 말하던 그는 마지막에는 형제의 유대까지 저버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살아남은 셋은 미래에서도 서로를 향해 손을 뻗기를 택했다. 그들은 연결이 서로를 살게 하리라 믿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세상의 모두가 단절되길 바라는 악당 몰죽제비는 자신을 ‘허상의 개념’이라고 소개한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누구와도 이어지지 않은 채로는 살아갈 수 없다. ‘단절’이라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단절된 상대가 있어야만 설립 가능한 말이다.

‘사라잔마이’에서 말하듯,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연결이다. 누구에게도 인식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그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온전히 존재하고, 생존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것은 서로의 욕망과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서로의 욕망과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은 포지티브섬 게임에 대한 기대에서부터 출발한다.



‘돌아가는 펭귄드림’에서는 계속해서 ‘생존 전략’을 외치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사라잔마이’라는 말은 해석하면 그 자체가 ‘접시 세 개’라는 뜻이 된다. 주인공들이 쟁취하려는 생존 전략이자 자원인 접시 세 개. ‘사라잔마이’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는 서로가 단절되어 태어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짓눌러 자원을 쟁취하며 생존하는 것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그것만이 방법은 아닐 것이다. ‘사라잔마이’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지만 확실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강요된 희생에 저항하기, 제로섬 게임을 부정하기, 목소리를 듣고 이어지기.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것이고, 각자의 맥락이 수없이 다양한 만큼 수없이 다양한 접근과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제로섬 게임 논리를 타파하고, 타인 사이 단절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들려붙어 있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타자를 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의 상대, 제로섬 게임 속의 대전 상대로만 여기지 않고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보자. 꿈의 실현은 꿈으로부터 시작하니까. 타자와 욕망을 나누고 이야기를 교환하며 연결되고, 유대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잔인한 세계관을 넘어 이어지고 싶으니까.





자보
수난시대
- SPC 불매 운동 자보 작성

정리정돈 검은

1. 왜 우리는 자보를 작성했는가

2022년, SPC 삼립 제품의 불매 운동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SPC 삼립은 파리바게뜨, 웨이 크랙,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등 우리에게 친숙한 프랜차이즈들을 경영하는 SPC 그룹의 계열사들 중 하나이다. SPC 그룹은 직장 내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 파견 문제, 민주 노조 탄압 문제 등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왔다. 사실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는 2017년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을 시작으로 계속 고발되었지만, 2022년 3월 화성 식품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화장 임종린 씨가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 결과,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중심으로 일어난 SPC 삼립 제품의 불매 운동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언론에서도 주목할 수준이 되었다.¹

시간이 지나면서 불매 운동 및 SPC 계열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잦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C 그룹의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²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23일, SPC 계열 사니 제빵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³ SPC 계열사에 대한 불매 운동의 화력은 다시금 강해졌다.

한편 문우편집위원회(이하 문우)는 4월 ‘뉴스클리핑’으로 SPC 부당노동행위 투쟁을 다루는 등 해당 계열사의 행보 및 노조와 시민들의 연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10월에 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문우는 SPC 계열사 불매 운동에 관한 자보를 작성하였다.

1 고병찬, "#동네빵집_챌린지...SPC 불매도 하고, 제빵기사 노조 연대도 하고", 한겨레, 2022.05.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626.html.
권호중, "사람이 굶는데 어떻게 빵을..." '파바' 불매 나선 시민들", 이데일리, 2022.05.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76646632330232&mediaCodeNo=257&OutLnkChk=Y>.
2 조효정, "평택 제빵공장서 20대 여성 소스 배합 기계에 끼 숨져", MBC 뉴스, 2022.10.15.,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7247_35673.html.
3 류수현, "SPC 계열 '사니' 제빵공장서 손 끼임 사고... 경찰 조사", 연합뉴스, 2022.10.23.,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3021100061?input=1195m>.

2. 자보 전문

지난 15일,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한 20대 여성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3일에는 SPC 계열사 사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남성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안전수칙, 2인 1조 근무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상식적인 것들이 지켜졌다면 이 죽음과 부상만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SPC그룹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같이 근무하시는 노동자에게 시신을 수습하게 하고, 바로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재개하며 노동자들을 인간 이하로 보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 현장을 온전히 수습하지도 않고 다만 흰 천으로 덮어두면 그만입니까?

SPC그룹의 반인권적 행보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SPC그룹은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적발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착취하며 탄압해왔고, 이들의 안전을 무시해왔습니다. 결국 SPC그룹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 왜곡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말로 소박하고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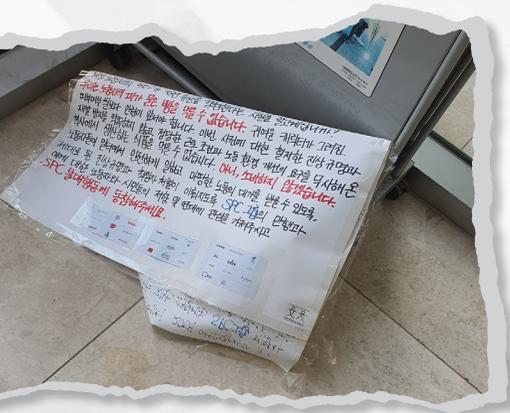
‘휴게 시간과 휴일을 보장해줄 것.’

현재 노동자들은 아무리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임신한 노동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키지 말 것.’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의 50%가 자연 유산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띠띠부셀보다 인권이 앞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정당한 근로 조건과 노동 환경 개선의 요구를 무시해 온 회사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마땅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SPC그룹의 만행과 이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저항 및 연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SPC 불매행동에 동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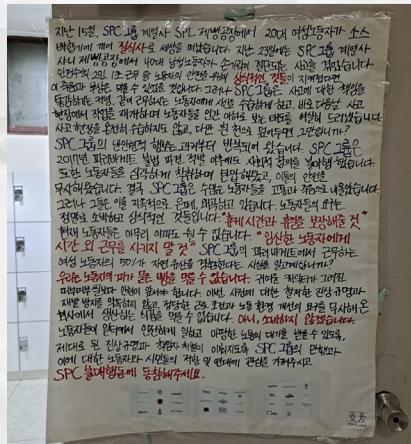
3. 자보가 겪은 수난

2022년 11월 7일 문우는 자보를 작성하여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기둥에 부착하였지만, 불과 하루 만에 떼어져 찾을 수 없었고, 얼마 후 꽤 떨어진 곳의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는 자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11월 10일 문우는 자보를 다시 작성하여 동일한 장소에 붙였다. 이전 자보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졌을 것을 우려하여 해당 자보는 접착력이 강한 청테이프로 부착하였으나, 이 역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떼어져 길가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두 번의 자보 훼손을 겪은 문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보를 훼손한 것으로 짐작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첫 번째 자보를 외출관 지하 1층 계단 입구에 붙였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다행히 이곳에선 아직까지 자보가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



4. 자보만이 겪는 수난일까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편집위원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중앙도서관에는 다른 자보들도 붙여져 있었지만 떼이고 버려지는 것을 반복한 자보는 문우의 자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 하필 SPC 불매 운동 자보만 떼어졌을까? 보다시피 자보의 내용은 학생으로서 해당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연대를 표하고 있었다. 자보를 누군가가 (아마 의도적으로) 떼 행동을 기저에는 사회에서 낮게 바라보기 일쑤거나 때로는 아예 신경 쓰지도 않는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연대함에 대한 반발심리-어쩌면 혐오감-가 자리 잡혀 있고, 그 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와 폭력이 '자보 떼기'라는 물리적 행동으로 표출되었으리라고 추측할 뿐이다.

또한 문우는 무엇인가 미묘하게 바뀌고, 날이 선 학생사회의 분위기를 체감하였다. SPC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문우의 자보가 두 차례나 떼어져 버려지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은 있었다. 예시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자보를 작성하여 중앙 도서관 앞에 붙인 한 학우가 익명 대학생 커뮤니티 이용자들로부터 사이버불링을 당하기도 하였다.

익히 알려진 자보 문화는 캠퍼스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학우들이 널리 향유하던 대학교 문화이자 대학 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동등한 층위에서 표출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의 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쳐 학생사회의 탈정치성이 더욱 명백해진 지금, 자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한 번 게시된 자보는 특정 사건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을 경우 금세 힐난의 대상이 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자보의 작성자까지 신상 규명의 대상이 된다. 문우가 '자보 수난기'를 통해 깨달은 것은, 현재의 학생사회는 특정한 종류의 정치적 발언에 매우 적대적이며, 특히 학생사회 내에서 다수의 익명이 암묵적으로 특정한 발언을 검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캠퍼스는 특정한 지향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학생사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펼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견을 안전하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보 수난기를 마친다.



문우 66호 독자모임

정리정돈 아자

입김이 모락모락 나던 11월의 어느 날, 문우의 독자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독자모임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채로 연희관 자치도서관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하게도 사회과학대학 언론 동아리 '연희관 015B'의 편집위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문우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장 검은, 편집위원 포슬, 능, 노랑, 야부, 유연, 찌부찌가 참여했고, 연희관 015B에서는 편집장 곤지, 퓨, 편집위원 모자, 심술, 오월, 온, 영원, 예원 님이 참여해주셨어요.

*문우 66호를 비롯한 지난 호는 문우편집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 구성

찌부찌/ 메인 세미나의 주제가 전쟁으로 정해진 이유가 궁금해요.

검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한창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막 시작됐던 때였어요.

유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침공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퓨/ 저도 궁금했던 게, 전쟁 기획으로 묶인 기사들이 다양한 곳으로 뿔어나가고 있잖아요? (세미나에서는 어떤 것을 읽으셨는지, 세미나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연희관 015B)는 텍스트를 단발성으로 정해서 그때그때 하고 넘기거든요. 그래서 (문우편집위원회) 어떻게 세미나를 기획하고 그걸 글에 반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노랑/ 주제 안에서 차시를 정한다고 할까요.

검은/ 전쟁을 큰 주제로 잡고, '전쟁과 젠더', '전쟁과 민족', '냉전과 자본주의', '반핵과 평화', 이렇게 가지를 뺐어서 진행했어요.

권두시&편집장 서문

노랑/ 제가 이번 호에 참여를 안 했다 보니까 훨씬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권두시도 빼놓지 않고 읽는데... 문우 이번 66호 제목이 월간생존일이라고, 전쟁이 메인 주제였잖아요. (권두시에서) 험악하고 각박하고 거친 느낌을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재밌게 읽었고요. 편집장 서문도 읽으면서 (이번) 호에 실린 내용들을 잘 요약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인 기획 주제는 전쟁이지만, 문우의 눈이라고 메인 기획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시점으로도 내용을 다뤄보는 꼭지가 있는데 거기서 검은 님이 환경 이야기를 실어주셨단 말이에요. 편집장 서문에서 그 글도 적절히 버무려 적어주신 것 같아 잘 읽었습니다.

피부찌/ 서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 호 받아보고 생각보다 지금, 특히 올해에 실제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거든요. 편집장 서문을 읽으면서 우리 편집장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과 그 안에서 생존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생각하며 이번 학기를 끌어왔는지를 볼 수 있어 감명 깊었습니다.

심술/ 시를 읽을 때마다 시에서 병치되고 있는 단어들을 독자로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 어떤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가 우연성에서 필연성으로 확인될 때 시인과 소통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시가 시작부터 어떤 감각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이 시와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감각들이 느껴졌는데, 시의 마지막에서 <농담이니 / 마저들 살아가세요>라는 부분이 그런 감각들을 아울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는 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네요.

곤지/ 저는 서문이 인상 깊었어요. 제가 (연희관 015B) 지난 호 글을 쓰면서 사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서 글에 담을 수 있을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쓰지 못했는데, 이번 호는 문우가 여러 맥락과 삶을 담아내면서 쓴 호라는 것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특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써줬다는 점에서 오는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우의 이번 호를 읽기 시작할 때 되게 설레면서 서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가 굉장히 섬세하게 드러난 문장들인 것 같아서 너무 잘 읽었습니다.

아자, 야부, 루- 집을 찾는 수다회

모자/ 저는 이 글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밑줄 쳐 놓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난민을 마주하는~’ 이 부분이에요.

루/ (...) 그런데도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치는 난민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거나 주지 못하는 채 그저 사진만 찍잖아요. 상황적 격차가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난민의 이주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도 ‘난민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실제로 우

리가 서로 마주치는 장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나고 자란 땅에서 쫓겨나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난민들에게는 모욕적이고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일 텐데 그들이 느끼는 이 당연한 감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지 못했구요. 그 장면에서의 사람들도 그런 고민의 과정 없이 갑자기 서로를 대면한 거겠지요? 그때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격차,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참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모자/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냥 ‘난민을 박하게 대하면 안 된다’ 하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 당위적인 얘기만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피상적인 얘기였는지 다시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난민들을 바라볼 때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선(善)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준 것 같아서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곤지/ 저는 11쪽에 포슬이 해준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 저도 영화 《사마에게》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서사들만 보다가 ‘이렇게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나 희망적으로 서로를 돌봐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충격적인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짚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서로 나누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비물질적인 자원이 생산된단 걸 느꼈어요.” 특히 이 문장이 좋았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온/ 글 형식이 대화문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읽히고, 또 저도 함께 대화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영화 《애프터 양》을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언급된 것도 좋았습니다. 초반부에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서는 전쟁 속에서 지켜지고 기억되는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일상이든 전쟁이든 따뜻한 사람의 정을 느끼는 순간 때문에 살아가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짚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심술/ 저도 각본이라는 개념을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최근에 극장에서 음향 오퍼레이터를 했어요. 극은 가상의 상황이잖아요. 비 오는 효과음이 필요해서 제가 10개를 넘게 찾았거든요. 근데 연출을 맡으신 분이 이건 빗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는 것만으로도 빗소리로 느껴져야 하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유리창에 적당히 후두둑 부딪히는 빗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비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후두둑 소리가 더 비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각본이라는 게 진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위계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미리 통제하는 기제로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최근에 그런 경험과 함께 이 개념을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포슬-모자이크: 우크라이나와 한국, 장애와 난민에 관한 소고(들)

오월/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검은 집>이라는 짧은 다큐멘터리를 친구랑 같이 봤는데요. 그게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왜 생각이 났나 돌켜봤는데, 여기 글쓴이의 변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상적으로 본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과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나 난민,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대선 이후로 내 코가 석 자가 돼서 관심을 못 쏟고 있다, 하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요. 그러다가 국내 문제를 보지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국외에서 실제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 약간의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목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런 부채감을 약간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글이어서 잘 읽었고요. 난민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장애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 장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조명하지 않는 부분을 보는 데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여태 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시점에 관해서도 고민하시고, 사려 깊은 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지난 호 글을 쓰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조사가 적절히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려 깊고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글을 쓰고 싶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월/ 글 처음에 ‘글쓴이의 변’이라고 써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글을 읽어내갔어요. 그 부분에서 방금 오월의 말처럼 사려 깊은 태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컨대 “바다 너머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는 ‘어떤 렌즈를 통해 ‘그들’을 만나야 할까요?’”라든가,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지어 다른

언어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표현들이 내가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삶을 온전히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전제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와 난민의 교차점을 지점을 짚어주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서술해주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30쪽 하단에서 “‘정상 신체’의 생계 유지가 곧 난민 지원의 핵심인 것으로 말이지요.”라는 부분에서 난민의 지원을 두고 난민의 최저생계를 고민할 때 정상 신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겠구나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이들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어도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주는 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심술/ 저도 이 글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좋아하게 된 만큼 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글의 매력은 ‘글쓴이의 변’과 나가며 한 저자의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앞부분을 읽으면서는 말의 매개와 장소, 위치,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장소와 위치 속에서 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가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읽었어요. ‘정말 우리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마주했을 때 연결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름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옷을 입고,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연결될 때 연결이 시작되잖아요. 언제나 시작은 벌거벗은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입고 있고 특정한 장소에 있으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품은 채 글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두 가지 흐름을 의도했다, 난민과 장애의 교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면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읽혔으면 한다고 마무리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전해주고 싶다, 내가 이걸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글을 쓰는데,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겠다, 다 말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글을 쓰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하기의 태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두텁고 재밌게 읽히는 글이었습니다. 포슬, 저의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나요?

포슬/ 맨 처음에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완전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야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지점은 감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그 감각이 되게 난잡하다고 생각해요. 그 연결이 절대 매끄럽지 않고 엄청나게 울퉁

불통하고 더러운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 글을 쓰면서 계속 고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스스로 이 글이 망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흐름을 상정해 놓고 여러 이야기를 짜 맞추는 구도로 이 글을 썼는데, 최근 들어서 글을 읽는 입장이든 쓰는 입장이든 어떤 이야기를 독해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짜 맞추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써야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써야겠지만 나의 자아를 지나치게 투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난잡하고 더러운 과정 속에서 글을 열린 결말로 끝낸 이유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내 이야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술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건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면서 좀 더 모호하고 좀 더 정확한 이야기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능할까요? 모르겠네요. (그런 반응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만남과 연결이라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만큼 무섭고...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영원/ 저도 좀 더하자면, ‘사려 깊다’는 표현이 용기 있는 태도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 전부터 ‘가장 용기 있는 자는 비겁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라는 문장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글쓰기의 변’도 그렇고 ‘나가면서’도 그렇고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저건 저렇다, 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태도가 용기 있는 태도라는 생각을 했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쓰는 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유연-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랑/ 짧게 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1학년 때 국제법에 관한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NPT, 핵 확산방지조약에 대해 배웠지만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름만 알고 잘 모르는 주제였어요. 혼자 이걸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조약집 같은 형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고 좋았어요.

피부찌/ 41페이지에 “모범적인 비핵/비확산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혜적인 언어라는 게 비단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내지는 작은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맥락을 잘 알기 어려웠는데 읽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심술/ 저도 같은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국제 정세에서 역학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어진 정보만 수용하는 뉴스 시청자나 신문 구독자로서도... 그래서 누군가의 해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모범에 대한 그 문장이, 항상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거론되는 국가들이 핵을 가진 국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되지 않는 국가들이 있고, 글에서 적어주셨듯이 비핵화를 했을 때 ‘잘했어~’ 하는 칭찬을 받는 국가들도 있고. 이런 역학 관계가 이 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읽어내기 위해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노랑/ 메인 세미나를 하면서도 계속 든 생각인데, 이런 글들을 보면 사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핵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구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꺾을지킬 수 있는지 그 파괴성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 사회에서 핵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 핵 가지고 있으니깐 건들지 마’, ‘저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어서 무섭다’ 하는 최후의 보루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고 느껴거든요. 핵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필수적인 이유는 글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비핵과 평화’이고, 분명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자랄 주제일 텐데 핵이 정말 단순하고 치졸한 싸움처럼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 글에서도 읽어낼 수 있어서 좀 씁쓸했어요.

곤지/ 저도 비핵이나 평화와 같은 당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냉혹한 국제 관계 현실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적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글이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를 진행한 것이 그들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어졌다는 어떤 전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볼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침공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약한 국방력으로 촉발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지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고 예뻐요. 이런 거 저도 너무 탐나요. 쓰시면서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단-멋지고 비싼 안보를 결제하시겠습니까

심술/ 저는 이 글이 정말 재밌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들어 있고, 어떻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결정해왔고 결정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우리의 안전이나 안보와 관련한 것들이 자본의 통제를 받게끔 계속 두어도 괜찮은 것인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상품화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물은 더 상품화가 심하고. ‘공기의 상품화’ 하니까 어떤 드라마가 생각났는데, 재벌 집에서 자기 집에 자체적인 산소 공급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의 양이 많아졌을 때 사람이 프레쉬함을 느끼나 봐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언젠가는 정말 공기도 사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민간 잠수부와 국가 사이에 있었던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해석을 본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민간 잠수부들을 떠올렸을 때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투입되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착취당한 부분도 있잖아요? 국가와 민간 잠수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의 영역에서는 정부의 몫이 컸다는 기본 세팅에 대한 설명이 더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근’과 민간 잠수부를 동치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차이들이 좀 더 설명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구조의 맥락이 더 들어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간 잠수사들이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점들에 관해 이야기한 것, 안전 장비를 더 달라고 얘기한 것과 안보 업체에서 가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맥락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것을 완전히 같다고 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 글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곤지/ 일단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는 멋진 제목이 너무 좋았고요. 안보와 무기 회사와 자본주의, 남성성이 매우 긴밀하게 얽히고설켜서 지금의 안보 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컨대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생화학 무기를 만들던 군수 물자 회사들이 자기 발명품을 살충제를 만드는 데에 사용해 그것으로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이고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했던 일들도 떠올랐고요. 이 무기 회사, 안보를 만들어 내고 누군가의 삶을 지킨다고 말하는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평화를 파괴하고 삶을 죽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전쟁을 얘기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도 무척 적절하게 느껴졌습니

다. 자칫 거대하고 복잡할 수도 있는 이 구조에 챗터를 나누어 논리적으로 만든 흐름도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도 너무 좋았어요. “힘을 지닌 거대 주체들 사이에서 개인은 어떠한 안보를 꿈꿔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 차원에서만 안보를 꿈꿔야 할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전환을 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60, 봉화, 검은-전쟁은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찌부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전쟁을 너무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후와 식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무엇을 무너뜨리는가’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사람들을 죽여 나가는 방식은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를 이야기해줬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문우의 눈’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을 검은 님이 써주신 것만큼이나, 전쟁이 결국 우리의 삶,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금아금 없애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글이라 좋았습니다. 삼국지 같은 걸 읽어보면 싸울 때 일부러 곡식 다 태워서 굶어 죽게 하잖아요. 그게 전략적으로는 멋져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을 깎아 먹고 결국 자기도 자멸하는, 공멸하는 거니까요. 효율 중심의 산업론이 만들어 낸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 결국에는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뫼/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사고방식, 그 시선이 식량과 자연을 볼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만 알잖아요. ‘요새 이거 값이 올라서 비싸졌대’ 하는 결과 같은 것만 아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이후에 뺏어나가는 내용도 좋았어요. 브루노 라투르의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게 이런 시선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지나치게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외계에서 지구를 객체화해서 보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변화를 모색하려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쟁이라는 관점이 지구라는 생태를 바라볼 때도 적용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찌부찌/ 그런 맥락에서 정말 저희가 요즘 되게 전시 상황 같은 시간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데 카르트-뉴턴식이라고 하는, 타자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는 전쟁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되게 전시 상황 같은 시간을 살아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심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전공 개론 시간에 ‘너네 혹시 이야기로 건설된 국가를 아니?’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야기에서 그것이 자기의 영토였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영토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이 국제 사회의 강대인 미국의 수뇌부를 움직이는 등 정치·경제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건설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 막연히 이야기와 기억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악행을 일삼고 있는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글 덕분에 추상적인 키워드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검은-해피 엔딩이 아닐지라도

모자/ 저는 항우울제 처방을 받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가 많았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는 걸 포기했거든요. 내가 왜 우울한지를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헤테로 남성으로서 너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고, 의대에 갈 정도로 똑똑했으며 자기 삶에 고난이라곤 없었던 사람인 거죠.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 납작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7월에 노동운동으로 한창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시기에 병원에 가서 제 얘기와 한국 사회의 산업화로 인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피해와 구조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로부터 유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해결책도 아니고,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회 현실을 벗어나는 건 사실상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선생님께 제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내가 약을 먹고 반응이 어땠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검은 님이 이 글에서 의사 선생님께 기후 위기로 인한 우울을 이야기했을 때 항우울제를 더 처방해주겠다는 반응이 너무 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똑같아서 ‘나만 이런 힘들음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좋았어요.

심술/ 저는 되게 좋았던 구절이 있는데, 72쪽에 “*사회적인 재난을 목도하면서 마주한 수많은 감정들이 오로지 개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치환될 때, 실제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고 목숨을 잃는 재난을 오락과 기화로 삼을 때,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와 삶들은 은폐된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책임이나 처벌 같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건 누구의 책임인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실제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일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려는 행동들, 그 책임과 책임을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고통을 보듬는 방식이 아니라, 얼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만들어서 나에게서 분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그런 기제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개인도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닐 수 있는데도, 모든 걸 나의 책임으로 느끼게 되고. ‘네 책임, 내 책임 따지면 뭐 해, 내가 다 담당해야 하는데’ 이 문장을 보며 이런 생각들이 새삼 많이 들어서 마음에 오래 남을 구절인 것 같습니다.

찌부찌/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민이 뭔가 생산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보다 단순히 ‘그래서 너무 우울하다’라는 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힘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커다란 세상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상대는 그 커다란 세상이고, 내가 무언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동해야 하고... 나를 거대한 세상에서 떼어내서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느끼게라도 움직여야 하는 힘이 부딪힐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좀 이상하죠. 오늘 날이 이상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모자/ 개나리가 폼이 났어요.

유연/ 철쭉도 폼이 났어요.

심술/ 이 이상고온이 곧 끝나고 다음 주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찌부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주어지는 대로 비명만 지를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움

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을 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
멈추려는 힘과 나아가려는 힘 사이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퓨/ 그런데도 이런 결론을 맺으셨다는 것이 너무 멋지고 좋았거든요. “그래도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작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실천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늦춰져서, 내가 바라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셨다는 것이 너무 멋지게 다가왔어요. 한 2년 전쯤에 저도 제 원고를 작성하면서 일주일 내내 울면서 지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세상이 너무 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때 저의 결론은, 정신 승리? ‘어쩔 수 없다, 살고 보자’였어요.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는 조금 됐거든요. 그것이 없음에도 왜 살아야 하고 왜 행동을 하고 왜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내면서 마주친 만남들 자체가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편집후기

LIMITED EDITION

마감이 있어서 슬로 슬로 판 채 나왔네요.
다음은 꼭 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사람들의 존댓말이 많이 줄어들어
사랑합니다.
-60-

60의 비명



긴 여행으로 이번 호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살리는 용은 글들을 보니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제 휴학생도 된 함에 새학기-문구철동은.. 매번 다짐만 거창하게 해서 민망하다는 말은 더이상 안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문구 네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특히 오래 묵혀둔 베틀남을 마무리하신 송희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구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그대들 함께하고 있다는 감사를 상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늘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야부의 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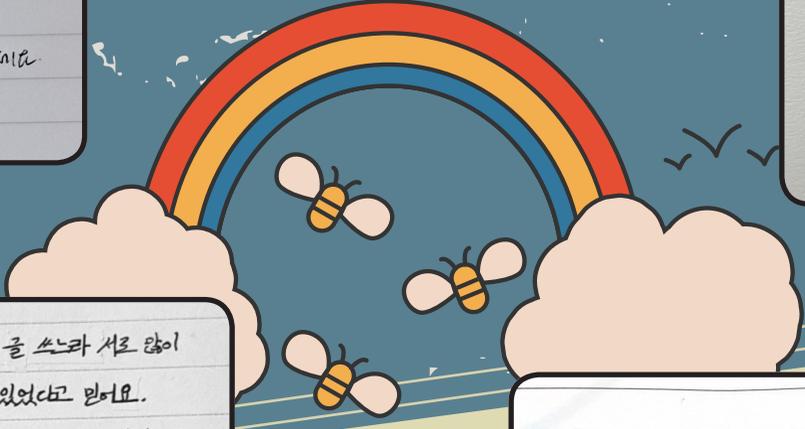
ROOBY

대번 키는 말걸리만 글 쓸 때는
 참 멋있어서도 어렵네요. 다음번에는
 더 멋진 글을 쓰고 싶어요.
 요즘에 시 읽기가 좋아져서.. 시장을
 좋아 봐보려구요.
 글 읽어주세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검은의 비명

야자의 비명

저 목심이 과해... 결국 개인으로 마감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문우의 사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해두지 않으면 다음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테니... 달라져야합니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흐른 것 같아요.
 숙제 없이 흐르는 시간을 보자면 상상 할 수 없을 바랄 때
 있습니다. 무형이에요..
 문우의 K.K.씨 연구,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문우에 들어온 것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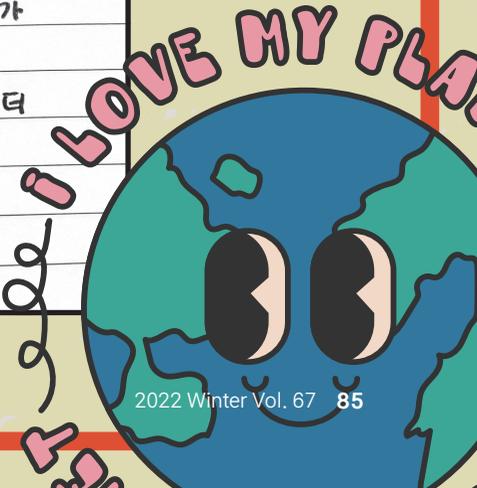


제목처럼 모두가 비명을 지르게 된... 그런 호였네요. 하지만 그만큼 글 쓰느라 서로 많이
 만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니 허 행복해서 자는 비명도 있었다고 믿어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타인의 욕망과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다 같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연습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미래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것저것 꿈꾸고 이것저것 말하고 듣는 우리가 되길!
 아무튼, 제게 나를 신권수전을 겪은 기획안이었던 바람에... 정말 문우 감정이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절대 절대 완벽하게 못했을 거예요!! 최고의 동아리 무췌~! 다음에는 좀 더
 자료도 많이 찾고 공부도 많이 해서 글을 쓰고 싶네요. 그 짧은 즈음이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던 글을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우방 구석에 사는 자발원이 될게요. 글뿐 아니라 너 삶에 생각을 붙여넣어 주는
 자락, 아음의 고향. 사랑합니다. 아음 학기에도 함께 밤을 새우며 아감을 향해 달려요.
 마지막이... 너무 저주 같네요?

노랑의 비명

포슬의 비명

이번호는 글도, 편집후기도 지각하고야 말았네요... 늘 편집장님께
 조급한 마음 붙입니다. 감성 부족한 사람 끝까지 고별
 많으셨습니다..
 이번호로 문우 내내 고민하던 내용을 정리해 볼다는 의기도
 있었는데 그지 큰 전진이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웠던 카피요.
 앞으로 남은 몇 안되는 글은 다른 주제나 다른 기대를 가지고
 써보고 싶다는 마음인데.. 내가 감수할 바깥지각생자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말 많은 제를 끼친 방한이었는데.. 다음호는 더
 튼튼한 편집위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늘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글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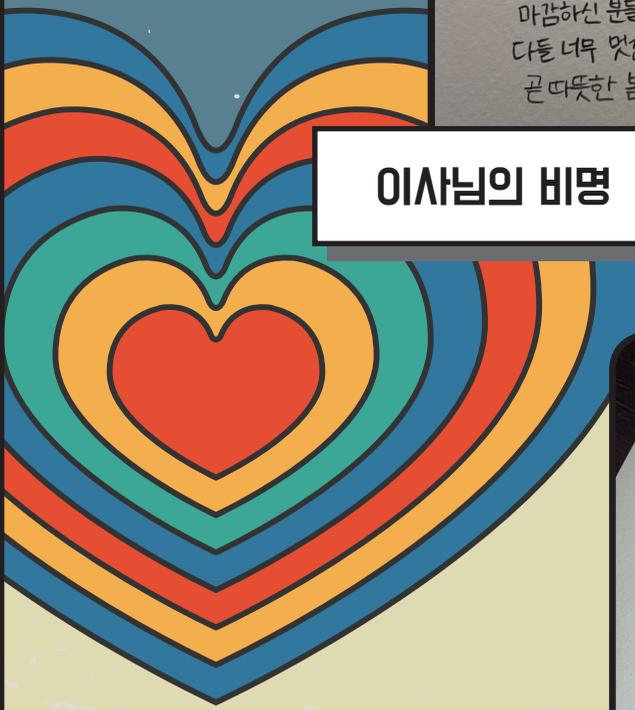
유연의 비명

연연이 웹소설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안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쓴 블로그 글이 떠올랐습니다.
 웹소설 창작자 의식에 대한 주절게임이었어요.
 2개의 생각들을 조금 바빠, 새로 바꾼 것들을 덧붙여
 몇 년이 지난 지금 안 지나 되는 글 끌어내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2개도 지금도 웹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로서,
 단연하게 웹소설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아 우선 애를 씹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기쁠 것 같네요.
 다들 정말 웹소설 읽어 주세요!

P.S 1 출판 얘기를 엄청나게 했지만 정작 요즘 저의 붐(boom)은
 정수원 작가의 '유리도 안 외로운 이세계로 갑' 이라네요...
 그래서 이 시점의 저가 이런 글 써도 되지 약간 근채장이.

P.S 2 저는 마음 속으로 이번 호를 유연의 비명으로 부르고 싶었던단다.
 00의 비명, 유연의 비명.
 저와 함께 방재 비명질러주는 윤사람들 항상 사랑해요! ♡



이사님의 비명

글도 쓰지 않았는데 편집 후기를 쓰고 있더니...
 요한 기분이에요. 더 도와드리고 응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문우에 들어온 후 시간이 꽤 지난 지금 문우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 됐어요.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문우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감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너무 멋진 글을 쓰셨어요.
 곧 따뜻한 봄이네요. 다들 따스운 하루 보내시길
 -이사님♡-

단(丹)

편집회의에는 열심히 참여했지만,
 결국 글을 실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화네요.
 윤이분들의 제1차 글은 언제나 기뻐하고,
 다시 좋은 글은 쓰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따뜻하게 감싸주신 모든 윤이분들,
 제1차 글은 현현이진 도우에게 강의로 감사하네요 인사 드립니다

몇몇은 글

난 현현이서 태어난 사랑이라
 들숨 날숨이 청량하고 비상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살에 승화이라
 긴 밤에 한껏 숨든 참고, 생명이 한꺼풀의 여지를 두어라.

단(丹)의 비명

